

#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기획특집1

한국전쟁 호주공군의 飛史

기획특집2

개교 60주년을 맞은 공군사관학교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상징인물2

감투정신의 상징 이근석 장군

# 자연 도서관

부들과 창포가 피약별 아래서  
 목하 독서중이다, 바람 불 때마다  
 책장 넘기는 소리 들리고  
 더러는 시집을 읽는지 목소리가 창랑(滄浪) 같다  
 물방개나 소금쟁이가 철없이 장난 걸어올 때에도  
 어깨 몇 번 출렁거려 다 받아주는  
 싱싱한 오후, 멀리 갯버들도 목하 독서중이다  
 바람이 풀어놓은 수만 권 책으로  
 설령설령 더위 식히는 도서관, 그 한켠에선  
 백로나 물닭 가족이 춤과 노래 마당 펼치기도 한다  
 그렇게 하루가 깊어가고  
 나는 수시로 그 초록 이야기 듣는다  
 그러다가 스스로 창랑(滄浪)의 책이 되는 날에는  
 수만 갈래 길이 태어나고  
 아득한 옛날의 공룡들이 살아 나오고  
 무수한 언어들이 적막 속에서 침병거린다  
 이때부터는 신의 독서 시간이다  
 내일 새벽에는 매우 신선한 바람이 불 것이다  
 자연 도서관에 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샛별에 마음 씻어야 한다

배한봉, 「자연 도서관」, 『우포늪 왓새』, 시와시학사, 2002



■ 배한봉

1998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 시집 『흑조』, 『우포늪 왓새』, 『악기점』 등을 펴냈다.

■ 시 해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우포늪의 부들과 창포 사이로 바람이 불 때마다 화자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창랑, 즉 푸른 물결 소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름 날이 전해주는 초록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름다운 자연이 책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자연 도서관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 시인 도종환

# CONTENTS

# 2009.06

www.airforce.mil.kr Vol.372



표지설명 : 공군사관학교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표지사진 : 사진작가 김윤해

공군 June 2009 No.372

발행일자 | 2009년 6월 5일(통권 제372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전) 김규진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전) 기용호

디자인·인쇄 | 육군인쇄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04 명사로부터 듣는다 \_ '성숙한 세계 국가' 시대의 한국 공군
- 06 기획특집 1 \_ 한국전쟁 호주 공군의 飛史
- 10 At a Glance \_ 어린 딸에게
- 12 기획특집 2 \_ 개교 60주년을 맞은 공군사관학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16 Hot Clip \_ 5월의 푸른 꿈을 실어 하늘로! 우주로!
- 18 이등병이 쓴대 \_ 군생활의 첫 단추
- 20 Beauty 바이러스 \_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 22 참모총장 스케치
- 24 부대동정 \_ 한·미 공군간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훈련 실시  
\_ 아주 특별한 선생님들의 특별한 하루
- 26 공군은 지금
- 28 e-Sports, <ACE> \_ 인생역전이란?
- 31 책마을 \_ 기적의 배
- 32 World-Wide Vision \_ 스페이스 파워
- 36 창군 60주년 특집 5 \_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상징인물 ㉒, 이근석 장군  
\_ 6월의 공군역사  
\_ 역대 주력 전투기 기종 소개 ㉓
- 44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연필의 다섯 가지 교훈
- 46 Bird-Alert! \_ 높이 날고 멀리 본다 갈매기
- 49 PREVIEW \_ 6월의 문화행사
- 50 생각하는 그림 \_ 램브란트의 '야경'
- 52 전재인의 일상茶반사 \_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지킨 차인(茶人), 서산대사
- 54 우리, 건강합시다 \_ 하체에 힘을 길러주며 균형감을 잡아주는 영웅자세 Ⅲ
- 56 Letters to the Editor \_ 4월호를 읽고서



## ‘성숙한 세계 국가’시대의 한국 공군



1949년 L-4/5 몇 대로 창군한 우리 공군은 다음 해 벌어진 6·25전쟁에서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F-51기로 전투에 참가하여 근접 지원, 후방 차단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워낙 규모가 작아 유엔군 항공작전이 기록한 총출격 횟수 87만회 중 1%인 약 8천 소터를 차지했을 뿐이었다. 그 후 F-86, F-5, F-16, F-15로 기종을 높여가면서 작전 역량을 높여 이제는 항공기 800여대를 보유한 막강한 공군으로 성장하였다. 불과 60년 만에 이룬 이러한 발전에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환경과 달라진 한국의 국제 사회 속에서의 위상 변화로 한국 공군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일대 변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6·25전쟁 이후 40년 동안 지속된 냉전시대에서는 한국 공군은 전지구적으로 전개되던 동서 진영간의 대립에서 자유민주국가 진영의 일부로 미 공군과 더불어 제한적 임무만 수행하면 되었다. 1990년 이후 약 20년간은 미국이 단독으로 지배하던 미국 지배의 단극체제가 유지되었으며 이 기

간 동안에는 한국 공군은 역시 미 극동 공군과 공동으로 한국 방위 임무를 수행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환경은 바뀌고 있다. 미국 지배의 단극체제가 여러 강대국들간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새로운 세력균형체제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미국 이후 세계 질서(The Post-American World System)’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강국이나 미국 단독으로는 국제질서를 안정되게 관리할 수 없고 다만 동맹국들과의 협조 아래에서만 균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 구도도 바뀌게 되어 한국 공군도 전쟁 주도 능력을 갖춘 공군이 되어야만 되게 되었다.

2012년 4월 17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군 사령부가 분리되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국군의 과제는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된다.

한국군은 독자적인 전쟁 기획을 해야 되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계속 유지될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한국 공군은 여러 영역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나 독립된 군으로 독자적 CAISR체계, 독자적 군수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독자적 전력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제2의 창군이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과업을 우리 공군에게 안겨주게 된다.

연합군의 한 구성원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군운영의 모든 시스템을 마련하고 발전 유지해야 하고 소요 장비를 최소한이라도 모두 구비해야 하고 전력운영계획을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동맹군과의 협력은 우리가 그 협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만 가능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고 틀의 전환이다.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은 의지와 계획과 능력을 곁한 것이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약하거나 계획이 부실하면 큰 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 공군의 가장 큰 과제는 장병들의 주인의식의 함양이라 하겠다.

**능동적 전략 구상이 필요한 시대**

전쟁에서는 싸워서 이기기보다 상대가 싸움을 포기하도록 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 없이 국토 수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지는 적에게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의 보유와 이러한 능력을 사용할 의지를 갖추면 이루어진다. 적이 가진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적은 그런 무기를 보유하지 않게 된다. 소용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적의 미사일을 우리 영토 내에서 방어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럴 의지를 갖춘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는 그래서 적 전력의 '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군의 당면 과제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장사정 투발 수단을 갖추어 한국을 제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도 자체를 억지해야 한다. 북한이 준비 중인 전력을 사용 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위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 임무는 공군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타격 능력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한국 공군은 능동적 전략을 구상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Global Korea시대의 새로운 과제**

한국은 이제 생존을 위해 선진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13위에 이르는 국가, 세계 8위의 군사력을 갖춘 선진국이다. G-20 회원국으로 국제 질서를 관리하는 질서 주도국의 하나가 되었다. 현 정부는 미래 한국의 비전으로 '성숙한 세계 국가(Global Korea)'를 내세우고 있다. Global Korea를 "범세계 차원에서 지구촌 공통 관심사에 관해 적극 협력하고 처방하는 나라"라고 정의하고 "더 넓은 시야,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세계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평화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즉 Global Korea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은 국제연합이 전개하고 있는 평화유지작전(PKO)과 다국적군이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전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으며 현재 국제연합의 PKO 활동을 돕기 위해 7개국에 396명의 장병을 내보내고 있다. 다국적군 활동에도 5개국 313명의 장병을 파병하고 있다. 또한 해적 퇴치와 국제 해상교통로(SLOC) 보호를 위해 해군 함정을 인도양에 파견하였다.

책임있는 국제질서 유지국을 지향하는 한국은 앞으로 더 폭넓게 국제평화유지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과 관련하여 높은 기동력을 갖춘 공군의 참여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Global Korea시대의 한국 공군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외국군과 능률적으로 연합작전을 펼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제2의 창군이라는 각오를 다지자**

무에서 일어나 60년 만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공군을 건설해 낸데 대하여 세계가 놀라고 있다.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공군을 만들어냈다. 이제 달라진 환경에서 새로 부여 받은 임무를 소화하기 위하여 제2의 창군이라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뿔도록 하자. 지금까지 이루어낸 기적과 같은 성취를 바탕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Global Korea시대의 공군을 만들어 나가자. ●



● 이 상 우  
 - 신이세아질서 연구소장  
 - 공군정책지원위원장  
 -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의 위원  
 - 前 한림대학교 총장

# 한국전쟁 호주공군 飛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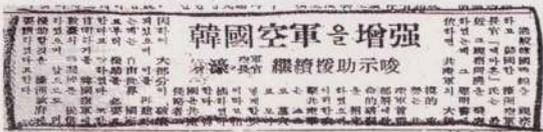
글 소령 라동섭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 기억하고 계십니까?

59년 전에 발발했던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됨과 동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혈맹으로 얻은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주축이 되었던 미국은 기억하면서 UN군으로 참전해 이 땅에 피를 뿌리며 산화해 간 21개 UN군 참전국의 전우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더구나 공군인으로서 조국의 창공을 함께 비행하며 평화를 지켜내 공군 참전국이 어느 나라들인지 알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더욱 아쉬운 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기록과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대한 서로 상이하거나 편중된 기록들로 인해서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 특히 공군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한 번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록물을 찾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정리된 한국전쟁 항공전사에 대한 기록은 공군본부에서 발행한 『공군사』(공군본부, 1991년 발행)이며, 한국전쟁 항공전사는 『항공전사』(공군본부, 1989년 발행)를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극동공군의 활동을 제외하고 한국전쟁에 공군전력을 참전시켰던 나라들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현저히 낮은 편이다. 심지어 한국전쟁에 공군을 보낸 나라가 몇 개국이나를 두고도 논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 왜 호주인가?

공군위클리 창간호[1953년 1월 17일(토)] 1면 기사 중



### 韓國空軍을 增強

#### 豪 空軍長官 援助示唆

過船韓戰線을 視察하고 歸國한 濠洲空軍長官 「맥마흔」 氏는 最近 그 視察所感을 發表하였는데, 그 聲明書에 依하면 共產軍의 大規模의 攻勢는 共產軍首腦階層에 致命的의 破裂을 招來하였으며, 이러한 攻擊共產軍은 스스로 墓地로 모라 날게 한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한다. 한국은 共產侵略者로 因하여 大部分이 破壞되었으며 이를 再建하는데는 自由世界 國家로부터 援助를 必要로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言明하기를 韓國空軍에 數臺의 戰機를 提供하였으며 앞으로 도 더 援助할 것을 濠洲政府에 要請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공군 참전국가 참전일자<sup>1)</sup>

국 가	참 전 일 자	비 고
미 국	1950. 6. 27.	극동공군
호 주	1950. 7. 7.	전투비행대대/수송기대대
영 국	1950. 7. 7.	
캐나다	1950. 7. 28.	수송기대대
태 국	1950. 6. 25.	수송기편대
남아공	1950. 10. 4.	전투비행대대
그리스	1950. 11. 25.	수송기편대

※ 출처 : 『공군사 제1 증보판(1949~1953)』(공군본부, 1991)

사진에서 보는 낡은 기사는 1953년 1월 17일 창간했던 『공군위클리』 1면에 실렸던 기사이다. 이 기사는 1면의 전체 기사들 중에서 가장 큰 크기로 지면 정중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공군 증강”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당시 호주 공군장관이었던 윌리엄 맥마흔(William McMahon 1908.2.23~1988.3.31)의 귀국 성명서의 내용을 다룬 것이다. 물론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당시 UN 참전국 중 한 나라의 장관과 관련된 소식이기지만 창간호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룬 것이 매우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 냉전체제로 전이되는 과정의 한복판에 선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를 다녀간 외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적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잘 살펴보면 위 기사의 우측 하단에 있는,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혈맹 미국의 해군장관의 기사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그 이유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다. 바로 “또한 언명하기를 한국 공군에 수대의 전투기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원조할 것을 호주정부에 요청하였다”라는 문장이다. 당시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전쟁에 참전을 결정했으며, 공군 1개 전투비행대

1) 참전국가 참전일자에 대한 기록은 기록물마다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호주공군의 참전개시 일자에는 『공군사』에서는 1950년 7월 7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호주대사관에서 제공한 공식자료에 의하면 7월 2일에 첫 출격이 있었다. 그리고 영국공군의 참전기록도 『공군사』에서는 호주군과 동일하게 7월 7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영국 왕립전쟁박물관 기록에 의하면 8월 22일 영국공군의 비행정에 의한 서해안 봉쇄작전이 시작되었다.

대를 비롯해 17,000여 명이 참전한 최대 우방국 중 하나였다. 더구나 개전초기 미국으로부터 긴급 인도받은 F-51 10대 중 2대를 1950년 7월과 10월에 각각 잃고 8대를 보유하고 있어 전력증강이 절실했던 한국공군에 호주는 1952년 11월 26일에 2대의 F-51를 한국공군에 기증했다.<sup>2)</sup>

**飛行飛史 in Korean War**

호주공군(The Royal Australian Air Force, RAAF)은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일주일 만인 1951년 7월 7일에 참전했다.<sup>3)</sup>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호주공군의 제76, 77, 그리고 82전투비행대대는 영연방 점령군(British Commonwealth Occupation Force)의 일원으로 일본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후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단독으로 영연방군 대표로 일본에 주둔하

제77비행대대의 마크



던 호주군은 1950년에 이르러서는 제76전투비행대대와 82전투비행대대가 철수하고 제77전투비행대대만이 미 제5공군 작전 지휘하에 남아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본토로 향하는 미

군의 폭격기를 엄호하는 임무를 위해 F-51 무스탕 전투기<sup>4)</sup>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키면서 미국을 제외하고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초기의 폭격기 엄호임무와 적 지상군을 향한 저고도 공격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교량, 철도 등을 파괴하여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는 임무에 투입되었다. 무엇보다도 전쟁 중 긴급 복구되어 운영 중인 황량한 활주로 여건들은 오히려 더 길고 완벽하게 포장된 활주로는 필요했던 제트기들에 비해 무스탕 전폭기들에게 유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5)</sup> 1951년 제트기로 전환하기 전까지 이와쿠니, 대구, 김포, 連浦 기지를 거치면서 하루 여섯 소트 씩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했다. 호주공군 조종사들과 무스탕 전폭기는 당시 탁월한 공대지 임무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군의 지대공 공격의 표적이 되어 작전 수행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희생자를 냈다.<sup>6)</sup> 이후 UN군이 북한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항공전력들이 한반도 내로 전개하면서 대구로 이동하였고, 1950년 10월 호주공군은 UN 사령부의 전력 재편계획에 따라 제91혼성비행단 소속이 되었다. 77대대가 속한 91혼성비행단에는 491정비대대, 391기지대대 그리고 제30수송부대가 포함되었다. 특히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이 491정비대대에 이동편성되면서 무스탕에 대한 야전정비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항공기 운용률도 상승했다.

제30수송부대<sup>7)</sup>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영연방 주둔군을 지원했다. 1953년 3월부터 제30대대는 한국과 일본 사이를 정기적으로 비행하면서 병력과 물자를 한국으로 수송하고, 30수송부대의 수송기에는 여성 간호사가 동승해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상자들을 일본 내의 병원으로 후송하는 임무와 UN군 사령부를 위한 VIP 수송임무를 수행했다.<sup>8)</sup>

1951년 4월, 77대대는 일본으로 일시 철수해서 기존의 무스탕 전폭기를 영국제 글로스터 미티어(Gloster Meteor T7 A77-702) 전투기로 기종

당시 호주공군의 F-51 사진



2) 이후 다시 5대의 무스탕을 기증했다.  
 3) 호주 대사관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7월 2일 제77전투비행대대 소속 F-51 무스탕이 첫 출격하면서 참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호주공군의 제77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던 무스탕 전투기는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뛰어난 전과를 거두었던 기종으로 6문의 0.5인치 기관포, 6발의 로켓탄, 그리고 2발의 227kg의 폭탄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비포장된 전방기지에서의 효과적인 운용성능을 보여주었다. (호주대사관 제공 자료)  
 5) 전쟁 초기 미 제5공군은 한국전쟁 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무스탕 전폭기를 제트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항속거리 연장을 위해 연료탱크를 폭탄과 함께 장착해야 하는 문제, 제트기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완전 포장된 활주로를 일본 내에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전쟁 중반까지 지연되었다. [UN공군사 상(한국전쟁 1950. 6 ~ 1952. 6)] (공군본부 譯, 1975), 25쪽]  
 6) 그레함 스트라우트(Graham Strout) 당시 77대대 비행대대장은 삼척지역에서 북한군의 대공포 공격에 전사했으며, 한 달 만에 비행단장이었던 루 스펜스(Lou Spense) 중령이 피격되었다.  
 7) 1953년 3월 7일, 30수송부대는 제36공수비행대대로 승격,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8) 휴전 이후에도 36수송대대는 일본에 주둔하면서 UN군을 위한 지원임무를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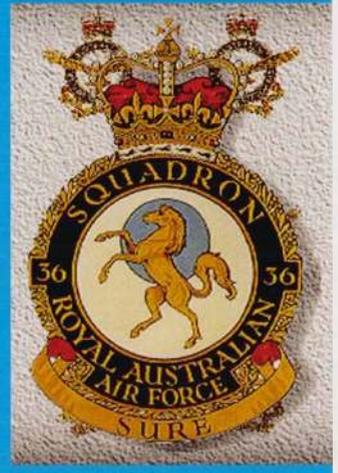
제77전투비행대대가 기종 전환했던 Gloster Meteor



제36수송대대에서 운용한 Douglas Dakota



제36비행대대의 마크



을 전환하였다. 당시 77대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제작된 글로스터 미티어 전투기는 영국에서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로 직접 운송되었다. 이전에 美 공군과의 교환근무를 했던 한두 명의 조종사만이 제트기를 이용한 임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종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sup>9)</sup> 결국 두 달 간의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치고 1951년 7월 77대대는 전투임무에 복귀했다.

한반도로 재전개한 제77비행대대는 美공군과 다른 UN군 대대들과 함께 김포기지에 자리를 잡고 휴전 때까지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기종 전환을 마치고 돌아와 제트기로 공중전에서 전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던 제77비행대대는 중공과 소련의 미그기에 대하여 '도그 파이트(Dog Fights)' 를 수행할 수 없었다. 당시 소련이 지속적으로 중공군에게 제공한 MIG-15의 성능은 F-86을 제외한 대부분의 UN군 전투기보다 뛰어난 가속력, 상승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

종 전환 이후 1951년 8월 25일 F-84E 전폭기와 MIG기 간의 전투에서 MIG기와 최초로 조우한 77전투대대의 글로스터 미티어 전투기는 공중전투에서 MIG기에 대적할 만큼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sup>10)</sup> 결국 제77대대의 임무는 북한 상공의 제공임무에서 방어제공 임무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호주공군은 11월에 공대지 임무를 다시 맡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UN군 보유 항공전력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sup>11)</sup>

한국전에 참전한 동안 제77비행대대 조종사들은 총 1만9천 소터를 비행하였으며, 그러나 공대지 임무에 집중한 결과 휴전 때까지 제77비행대

9) 美 공군은 이미 1950년 末, Mig에 맞서기 위해 기존의 프롭 전투기에서 제트 전투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대부분 완료하였다.

10) 『UN공군사』, 293쪽

11) 뛰어난 전과를 인정받아 1951년 11월 1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부대표장"을 수상했다.

대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34명의 조종사가 임무 중 사망하고, 6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는 참전한 전체 조종사 수의 1/4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게다가 영국공군 교환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사망한 4명의 조종사와 포로로 잡힌 1명의 조종사를 포함하면 그 수는 늘어난다.<sup>12)</sup> 휴전 후 제77 비행대대는 1954년 10월까지 UN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주둔하다가 일본으로 이동하여 그해 11월, 호주 항공모함 Vengeance 호에 실려 귀국하였다. 정비를 담당했던 491정비대대는 12월에 해산하였으나, 36수송대대 소속 다코타 항공기 2대는 1956년 6월까지 일본에 주둔하여 공수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이 2대의 항공기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정기노선을 운항하면서 인원과 우편을 수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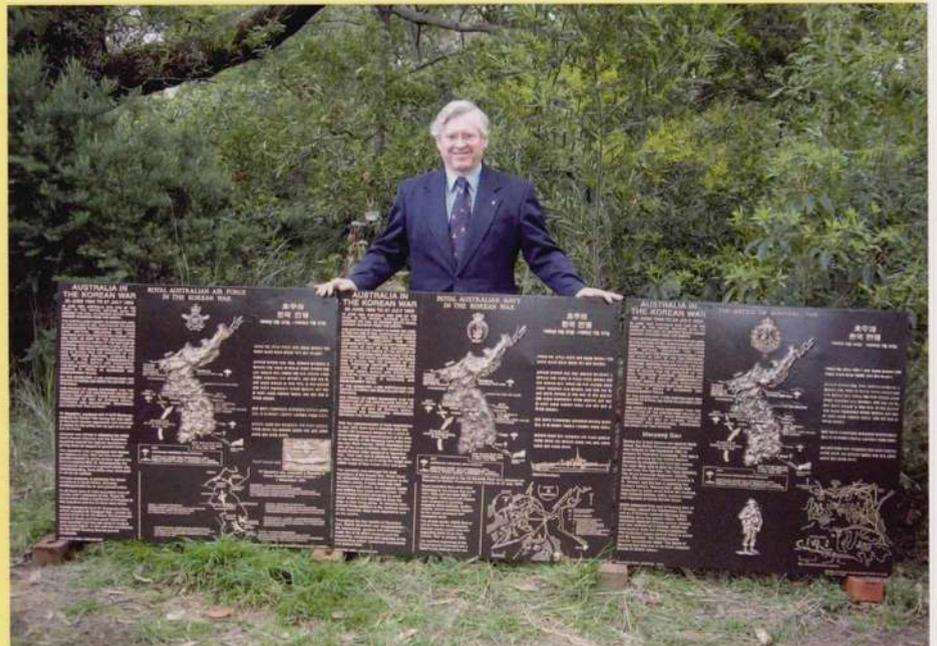
**잊을 수 없는 것들**

한국전쟁에 공군전력을 참전시켰던 나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났던 각국 대사관의 대사와 무관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과거 이 땅을 피로 물들였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과거에 대한 전후 세대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걱정했다.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국의 어린 학생들이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은 알아도 한국전쟁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개탄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들, 꼭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닐지라도 자유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검붉은 선혈을 이 땅에 뿌리며 숭고한 목숨을 바친 젊은 영혼들의 소중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바로 소중한 관계이다.

누가 내 조상에게 못된 짓을 얼마만큼 했는지 되짚고, 언젠가는 꼭 되갚아 주리라고 앙심을 품기 보다는 생면부지의 흰옷 입기를 즐겨하고 검은 눈동자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이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기억할 사람**

아래쪽 사진의 인물은 호주 멜버른의 치주전문의사인 Dr. Ross Bastiaan이다. 그는 자비와 개인 기부금 70만 불을 들여 세계 20개국에 160개의 호주군 역사 기념동판을 직접 제작해 설치해왔다. 그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으며, 어머니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은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그는 기념동판을 제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호주의 역할을 알리는 데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1998년에 한국전쟁 당시 호주군의 역할을 기리는 동판을 제작하여 한국에 기증했다. ㉠



호주군 역사 기념동판을 제작한 Dr. Ross와 그가 한국에 기증한 기념동판

**참고문헌**

- 『航空戰史 - 韓國戰爭』(공군본부, 1989)
- 『UN공군사 上(한국전쟁 1950. 6~1952. 6)』(공군본부 譯, 1975)
- 『공군사 제1 증보판(1949~1953)』(공군본부, 1991)

12) 일부 기록에서 한국전쟁에서 호주공군 조종사의 사망과 포로 수를 각각 38명과 7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영국공군 교환조종사를 포함한 수치이다.

# 어린 딸에게

시 박인환 사진 권순정 | 제20전투비행단

기총(機銃)과 포성의 요란함을 받아가면서  
너는 세상에 태어났다 주검의 세계로  
그리하여 너는 잘 울지도 못하고  
임 없이 지란다.

엄마는 너를 껴안고 3개월 간에  
일곱 번이나 이사를 했다.

서울에 퍼의 비와  
눈비람이 섞여 주위가 닥쳐 오던 날  
너는 입은 웃도 없이 별거승이로  
획차 위 별을 헤이리면서 남으로 왔다.

나의 어린 딸이여 고통스러워도 애소(哀訴)도 없이  
그대로 젖만 먹고 웃으며 자라는 너는  
무엇을 그리우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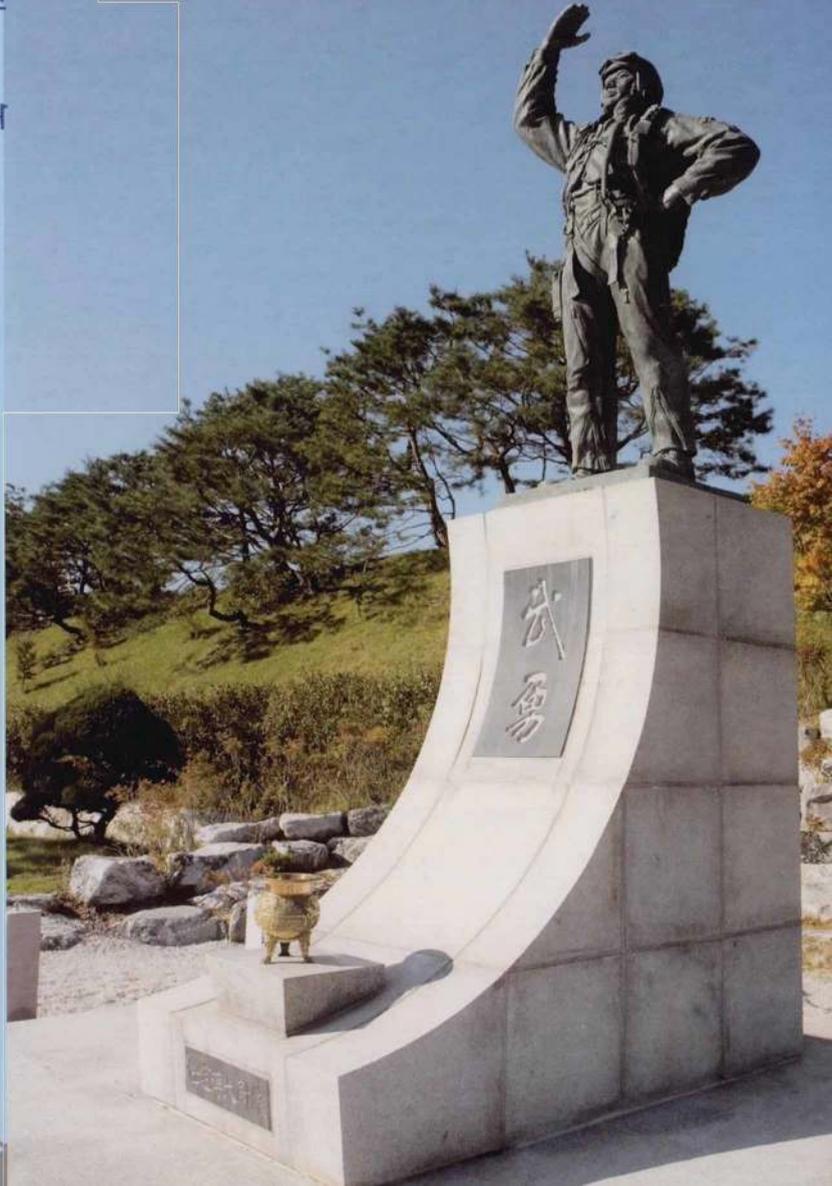


너의 호수처럼 푸른 눈  
지금 멀리 적을 격멸하러 비늘처럼 기는다란  
기계는 간다. 그러나 그림자는 없다.

엄마는 전쟁이 끝나면 너를 호강시킨다 마나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이며  
나의 어린 딸이여 너는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인가.

전쟁이 끝나면 너는 더욱 지리고  
우리들이 서울에 남은 집에 돌아갈 적에  
너는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계집애.

나의 어린 딸이여  
너의 고향과 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까지 너에게 알려 줄 사람이  
살아 있을 것인가.





# 개교 60주년을 맞은 공군사관학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자료제공 공사 계획처 원고정의 편집실

## ◎ 캠퍼스 변천사로 바라본 공군사관학교 개교 60년

### 1. 공군사관학교 설립

1949년 1월 경기도 김포에서 육군항공사관학교가 창립되고, 같은 해 10월 공군의 독립과 동시에 학교의 이름을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하면서부터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창공을 지키는 호국간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공사 교사로 선정된 곳은 김포 비행장 내의 동쪽에 위치한 건물 8개동이었으나, 그 후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까지 인수하여 제1기 사관생도를 맞았다. 초대 교장이었던 김정렬 대령이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근석 대령이 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 2. 6·25전쟁에 따른 잦은 이동

학교의 기틀이 채 갖춰지기도 전에 6·25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맞았고 공사는 1950년 6월 27일 당국의 비(非)전투부대 후퇴 방침에 따라 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고, 7월 3일에는 대구로 이동하여 대구 해서국민학교와 해안국민학교, 경복중학교 등으로 옮겨 다녔다. 그리고 7월 30일 진해기지에서 남하하여 약 2개월간 F-51 지상교육을 받았다.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되자 공군사관학교는 진해기지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성남중학교에 임시교사를 설치하고 제2기 사관생도를 모집하였

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사관학교는 다시 철수하여 12월 22일 대구 칠성국민학교로 이동하였고, 12월 31일에 제2기 사관후보생의 입교식을 거행하였으나 전세(戰勢)가 악화되자 1951년 1월 12일 공본 작전 명령 6호에 의하여 학교를 제주도 모슬포로 이동하게 되었고 제2기 사관생도들의 기본군사훈련과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 3. 전후 진해기지

전세의 호전에 따라 보다 안정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경남 진해를 적합한 후보지로 결정하고 1951년 2월 15일부터 진해 장전동에 있는 해병대 기지를 개수하고 중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3월 15일에 공군사관학교 진해 분교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공사의 전 병력이 제주도에서 진해로 이동을 개시하였고, 진해 교정은 이때부터 8년간 사관생도의 성장무대가 되었다.

1951년 8월 5일 제1기 사관생도 83명에 대한 졸업식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 교정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관생도의 정신과 신념을 표현한 교가는 1951년 봄, 김성태 작곡, 최용덕 작사로 제정되었으며, 공사 교육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사십훈과 충(忠)·용(勇)·근(勤)·검(儉)이 사관생도의 교육방침이 되었

다. 1955년에는 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공포되어 사관학교도 일반 민간대학교에 준하게 되어, 1956년 4월 10일에는 제4기 사관생도 졸업생에게 최초로 이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 4. 서울 캠퍼스 시대

그러나 진해기지는 어디까지나 임시 교사에 불과하였기에 본교에서는 다시 영구기지의 정착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휴전이 성립되고 사회도 안정되어가던 1954년 7월 1일 김창규 장군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사관학교 선전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지를 물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곳이 바로 서울 대방동이었다. 마침내 1955년 6월 23일 기지 건설 착공식을 가진 서울 대방동 신기지는 3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58년 12월 19일 준공됨으로써 사관학교 창설 이후 10년 만에 현대적인 교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울 대방동 캠퍼스는 7기생부터 33기생 만 27년간(1958~1985) 2,804명의 보라매를 양성하였다. 1972년은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진 해로서 이학사 및 공학사 학위수여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 국방관리학(이학사), 항공·기계·전자공학(공학사)의 4개 전공반 제도가 시행되었다.

### 5. 청주 캠퍼스 시대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생도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학교 주변의 도심화, 지가 상승, 산업공해 및 교통 소음은 부대 보안상의 제 문제뿐만 아니라 생도교육상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학교 이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6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사 이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사 이전 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81년 5월 7일 충북 청주 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현재 사관학교가 위치해 있는 청원군 남일면 일대가 이전 후보지로 확정된 후 '85계획'이라는 부지 매입 및 시설 공사 계획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바야흐로 2000년대 사관생도 교육에 부합하는 기지 건설 작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85계획추진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1982년 4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4년간 총 114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30만평의 토목공사를 실시했으며, 건물 43동을 건설하여 마침내 1985년 12월 21일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1985년도 2학기부터는 외국어학, 국제관계학, 경영학, 전산과학, 산업공학, 항공공학(2개반),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8개 전공학과 9개 반으로 증편되어 종래의 공학사, 이학사 학위 외에 문학사 학위도 수여하게 되었다. 1987년 4월 11일, 청주 캠퍼스 인근에 활주로를 갖춘 별도의 기지를 완공하고 초등비행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제212비행교육대대를 통합하였다.

1997년 2월에 최초의 여자사관생도가 입교함에 따라 여생도 훈육을 위하여 공군간호장교와 육군에서 전군(轉軍)한 여군 장교를 여자 훈육관으로 보



임토록 하였으며, 2002년 7월 22일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700㎡ 규모의 '하늘관'이 개관하여 생도들의 현대화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해졌다. 2003년 1월 10일에는 향온·향습 시설을 갖춘 지상 2층 건물의 박물관 수장고를 준공함으로써 역사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4월 5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교육정보화 체계개선을 위하여 학술정보원이 창설되었다. 1972년에 도입된 T-41B항공기는 공군의 정예조종사 양성을 위한 초등비행 훈련기로 사용되어 오다가 11월 28일 '고별비행'과 함께 퇴역되었으며, 차후기종으로 2004년 7월 5일부터 도입된 T-103 단일기종으로 비행실습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8년 4월 1일 학교임무 및 교육목표 재정립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이 승인되었으며, 4월 14일 항공체력향상을 위한 'Ace Center' 개관식과 5월 21일 제212비행대대 17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기록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일 국산1호 항공기 '부활(復活)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한 국내 우수 대학과의 교류는 계속 이어져 총 22개 대학교와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11월 12일 제41대 교장으로 성일환 중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2009년 2월 27일 제61기 신입생 입학식 거행과 공사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자긍심 고취와 뿌리찾기의 일환으로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하였던 장소에 기념비 및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3월 5일 공사 옛 교정(성남고) 기념비 제막식과 4월 15일 제주 대정초등학교 '훈적비' 보수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3월 11일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되었으며, 6월 10일 공군사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 새로운 60년을 그리며...

공군사관학교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일사불란하며 지속적인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2024」 학교발전 장기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학교발전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침서로서 공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며 「성무정책

과제」와 「10~14 학교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하늘을 드높이는 으뜸인재 양성'이라는 공사 비전 실현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장기발전계획서는 공사 교육발전체계 발전을 위해 <학위 교육>, <생활교육>, <군사훈련>, <학교 편제>로 구분하여 정책을 제시하였고

인적자원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수립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함과 아울러 최첨단 항공무기체계로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젊은 보라매의 산실이 될 미래의 공군사관학교를 기대해본다. ㉠

▶ 공군사관학교의 발자취

1949. 1. 14. 김포에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 10. 1. 공군독립과 동시에 육군항공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로 개칭	1950. 6. 25. 6·25 전쟁 발발 6. 28. 김포사관학교에서 수원 매산국민학교로 이동 7. 1. 수원에서 서대전국민학교로 이동 7. 10. 대구 해서국민학교로 이동 7. 15. 대구 경북중학교로 이동 7. 20. 대구 해안국민학교로 이동 7. 31. 진해기지로 이동 10. 10.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됨으로 서울 성남중학교 임시교사로 이동 12. 22. 대구 칠성국민학교로 이동
1951. 1. 25. 대구에서 제주도 모슬포 이동 2. 15. 진해 가교사 건설공사 착수 3. 15. 진해 공사분교 설치 4. 21. 17사관후보생 대구에서 사천기지로 이동 4. 26. 제주도 모슬포 병력 진해 교사로 이동 완료 5. 1. 진해분교 해편하고 진해본교로 통합 8. 5. 제1기 사관생도 85명 졸업	1955. 6. 23. 서울 대방동에 공군사관학교 착공식
1958. 12. 12. 서울 대방동 신축 사관학교로 이동 12. 19.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신축교사 준공	1966. 4. 11. 사관학교를 성무대로 명명
1981. 5. 7. 기지 이전의 필요성에 따라 청주 지역을 학교 이전 후보지로 결정	1982. 4.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 부지 확보 및 토목공사 착수
1985. 4. 11. 제212비행교육대 통합 12. 21.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 현 공군사관학교로 이동완료	1986. 1. 15. 공사 도서관 개관 10. 8. 공군박물관, 종합경기장 완공
1987. 3. 31. 청원기지 완공 12. 28. 호수공원 개장	1997. 2. 최초로 여자사관생도가 입교
1998. 7. 20. 실내 수중생환훈련장 건립	2003. 1. 10. 항온·항습시설을 갖춘 지상2층 건물의 박물관 수장고를 준공
2006. 4. 5. 학술정보원 창설	2008. 4. 14. Ace Center 개관식

항공우주시대 주역

# 공군사관생도 모집



## 2010학년도(제62기) 공군사관생도 모집안내

### 입학원서

- 접수기간 : 2009년 7월 6일(월) ~ 7월 17일(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군사관학교 [www.afa.ac.kr](http://www.afa.ac.kr)  
- 유웨이 [www.uway.com](http://www.uway.com)

### 1차시험

- 시험일 : 2009년 8월 2일(일)
- 과목 : 언어(듣기 제외), 수리(문·이과 구분), 외국어(듣기, 말하기 제외)

### 2차시험

- 시험일 : 2009년 9월 7일(월) ~ 9월 25일(금)
- 시험내용 :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 최종선발

- 기준 : 수능(800점), 학생부(100점), 면접(70점), 체력검정(30점)
- 합격자발표 : 2009년 12월 16일(수)

### 주요 신체기준

- 시력 : 조종분야 나안 0.5이상, 정책분야 교정 0.7이상
- 신장 : 162.5cm ~ 195cm(여자 정책분야 160cm ~ 195cm)

공군사관학교 입시문의 : 043) 290-5504, 043) 297-9156  
[www.afa.ac.kr](http://www.afa.ac.kr)

# 5월의 푸른 꿈을 실어

# 하늘로 우주로!

- 국내 최대 항공우주축제 '제3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9' 본선대회 개최
- 창군 60주년 맞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 마련

자료제공 공군본부 공보과 원고정리 편집실

**창**군 60주년을 맞아 마련한 '제3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9' 본선대회를 5월 24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국민들의 항공우주 사상을 양양하고자 지난 1979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3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연간 6만 여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과학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대회 자유비행 부문 본선에 출전하게 되는 1,300여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지난 4월부터 50여일간 진행된 전국 15개 지역의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자들로서, 본선대회에서는 이들 중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 날리기의 '왕중왕'을 가렸다. 지난해 신설된 물로켓 부문은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 650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참여하며, 본인이 직접 제작한 물로켓을 발사하여 70m 떨어진 표적의 중앙에 도달시키는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또한, 동력비행 부문은 '무선조종', '유선조종', '무선 헬리콥터', '무선 글라이더' 등 4개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국내 정상급 실력을 가진 참가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다.

올해 대회 개막식에서는 공군창군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참가하며, 공군참모총장과 이소연 씨, 참가학생 대표 등 초청내빈 15명의 고무동력기와 물로켓 개시 비행을 시작으로 동력 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과 고공강하시범, 유·무선 항공기 시범비행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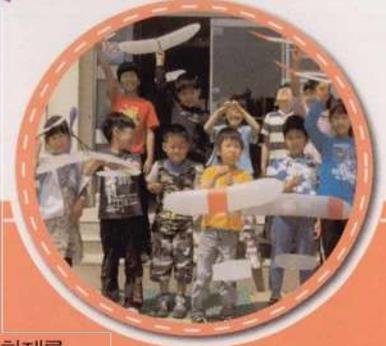
자유비행과 물로켓 부문의 우수 지도교사에게 수여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은 예년의 8개에서 물로켓 부문의 4개를 신설하여 올해에는 총 12개로 늘어났으며, 자유비행, 동력비행, 물로켓 각 부문의 금·은·동 수상자에게는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했다. ㉠





우리를 주목하라!

## Space Challenge 2009 화제의 인물



■ 전교생 11명 중 10명 출전, 출전학생 100% 본선진출...문막초 취병분교장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작은 분교장<sup>1)</sup>이 Space Challenge 2009 대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장'의 전교생 11명 중 10명이 강원·영서지역 예선대회에 참가하여 100% 본선에 진출하였다.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장'은 원주시 문막읍내에서도 더 들어가야 하는 전형적인 농촌 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흔한 문구점도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늘과 산과 들뿐인 이곳에서 방과 후 아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작은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김이나 담당 선생님은 '09년 Space Challenge 지도교사를 맡아 '본선대회 100% 진출'이라는 작은 신화를 만들었다.

취병분교장 학생들에게 공군 Space Challenge 대회 출전은 연간 행사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은 예선대회 몇 달 전부터 모형항공기 기체를 수도 없이 조립하고 날리는 연습을 한다. 항공기 기체 제작을 위한 재료는 주변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인터넷을 통해 원주시내에 단체로 주문했다.

지난 '07년부터 3년째 아이들과 함께 모형항공기를 만들다가 올해는 아예 지도교사를 맡게 되었다는 김 선생님은 "시골 학교이다 보니 아이들이 외부의 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장을 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며, "비법이나 노하우보다 워낙 뛰기 좋아하고 하늘과 비행기를 좋아하는 이곳 아이들의 그저 본선대회에 가서 맛난 것 많이 먹고 사람 구경이나 실컷 하고 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도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 상을 받고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것을 해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지도하게 된다"며, 본선 대회에서도 좋은 경험을 하고 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함께 출전하는 황교원(3학년, 9살)·지원(1학년, 7살) 형제는 "우리 둘이 함께 공군사관학교에 가게 되서 정말 좋다. 우리 학교보다 몇 배나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게 제일 좋다"며, 해맑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한편, 문막초등학교 취병분교장은 '07년과 '06년 대회 때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본선 진출자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지도교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1)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교'의 공식 명칭이 '분교장'임



## 군생활의 첫 단추



제1전비 정훈공보실 이병 김택진(673기) \* 제1전비 정훈공보실 일병 이현림(668기)

글·사진 편집실 취재지원 제1전비 정훈공보실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은 날, 학교에 처음 등교하던 날, 직장에 첫 출근 하는 날 등 사람은 일생동안 수많은 '첫 날'을 경험하게 된다. 대부분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며 기억 속에 한 자리를 꿰차고 있다. 대한민국에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숙명으로 맞이해야 하는 군대에서의 첫 날, 그 순간의 느낌이나 기억을 좌우하는 건

무엇보다도 '누가 나의 선임이 될 것인가' 일 것이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선임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 '복불복'의 요소가 짙은 선임과 후임의 매칭에서 살갑고 자상한 선임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보살핌이 아닐까?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았다.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다. **▲**



이런걸 이병님께

제1전투비행단에 온지 3주, 이런걸 이병님을 만난 지도 어느덧 2주가 되어 갑니다. 처음 이 이병님을 봤을 땐 굉장히 무서운 분이신줄 알았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날카로운 눈매, 굵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샤프한 외모까지..!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이 크게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항상 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자대 일에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이등병이기에 저는 이등병생활이 다른 동기보다 더 힘들고 적음 하기도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 이병님은 늘 이 이병님만의 굵고 낮은 목소리로 저를 '택!'이라 부르며 다가와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 화가 날 법한데도 불구하고 꾸짖음보다 조용히 웃으며 자상하게 제 잘못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병님의 고마운 마음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표현하고 싶지만 내성적인 제 성격 탓에 이렇게 편지로나 작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 야근을 하며 지쳐있는 제게 언제나 단골한 초콜릿 하나를 주시며 "힘드냐?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하자"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글은 쓰고 있는 지금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직도 머리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워만 생각했던 군 생활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 이병님으로 하여금 찾을 수 있습니다. 정훈병이라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아침일과부터 이와 종료 시까지 이 이병님과 함께라는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큰 추억입니다.

지금은 비록 일에 미숙해 이 이병님께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수 있지만 하루빨리 일은 숙달해 이 이병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후임이 되는 것이 제 작은 목표입니다.

다섯 기수밖에 나지 않은 작은 기수차라 저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시는 이 이병님과 남은 군 생활을 함께할 생각을 하니 남은 군 생활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등병이 쓴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 드리고 그 사연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mailto: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mailto:tribune44@gmail.com)(인터넷)



#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 여름 바캉스 특집 -

글 임병영 인 / 32천대 빙공통제부

**☞** 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여름이 돌아왔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바다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는 것도 좋고, 혼자라면 시원한 은행에서 피서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크림의 필수적인 사용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크림은 여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자외선의 양은 계절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며 흐린 날씨에도 80% 이상이 지표면에 도달하므로 1년 내내 챙겨야 한다. 자외선 데미지가 우리 피부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은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붕괴시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기미, 주근깨가 두드러지고 여드름 부위의 색소 침착으로 인해 피부는 얼룩지고 거칠어진다.

## 자외선이 뭘까

자외선은 '창문의 유리까지 뚫고 들어와 피부를 태우는 UVA', '홍반을 발생시키는 UVB',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는 UVC' 3가지로 나뉜다. UVA는 긴 파장으로 침투력이 높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자외선의 강도가 세므로 피부 광노화를 언급할 때 해당하는 자외선에

속한다. 차량 운전자의 왼쪽 손이 오른쪽 손보다 비교적 주름지고 색소 침착이 잘 일어나는 이유 역시 UVA가 차창까지 뚫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UV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고 낮 시간 동안 활동적이지 않다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UVC 역시 오존층과 성층권에서 제거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자외선이 소독과 균을 죽이고, 비타민D 합성에 필요하다는 뉴스 때문에 햇빛 쬐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소독과 멸균이 필요하면 기계 장치로 만들어진 자외선 조사기를 사용하고, 비타민D를 얻으려면 일광욕보다 차라리 합성 비타민제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끝으로 그늘에만 있다고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것 역시 아니다. 자외선은 고인 물 웅덩이나 시멘트 바닥에서도 튀겨져 곳곳에 꽃히므로 주의하자.

## 선크림 고르기

선크림에 쓰여있는 SPF(Sun Protection Factor)란 자외선 차단지수를 뜻한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홍반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이다. 이것을 토대로 SPF15 제품을 사용한다면  $[SPF지수 \times 분(시간)]$ 이라는 공식으로 약 5시간 동안 홍반 발생을 막아준다는 결과가 나온다. 가령 SPF50을 사용한다면 어떨까. 약 16시간 동안 막아준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피부는 엄청난 부담을 견안게 되므로 SPF15~30제품을 선택하여 3~4시간마다 한번씩 덧발라주자. 이렇게 하면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이제 SPF지수를 따졌다면 PA지수를 확인하자.

PA(Protection grade of UVA)란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등급을 뜻한다. 이 지수는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플러스 모양(+)으로 표기되는데 플러스 모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크다. 정리하면 SPF15에 PA++이 이상적인 선크림이라고 할 수 있다.

## QnA

1. SPF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 틀린 말도 아닙니다.

SPF15 제품은 자외선을 95%차단하지만 SPF30~50 제품은 98%를 차단하니까요. 하지만 이 3%의 차이는 크게 무시해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부에는 자극적입니다.

**2. 비싼 선크림은 소량만 발라도 되나요?** ≡ 가격이 고가라고 해서 그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크림은 용량이 많고 저렴한 제품을 넉넉히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비싼 선크림도 좋지만 아까워서 많이 바를 수 있을까요.

**3. 아이들한테도 어른이 쓰는 선크림을 발라도 상관없나요?** ≡ 키즈(Kids) 전용으로 나온 선크림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어른이 사용하는 선크림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SPF와 PA 지수가 정상적으로 표기돼 있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온다는데 선크림 발라야 하나요?** ≡ 형광등의 자외선과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은 그 파장부터 다릅니다. 형광등의 자외선은 피부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제대로 사용하기**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피부에서 활성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굴 기준 1회 사용 적정량은 약 1ml로 500원 동전크기와 비슷하니 사용할 때 참고하자.

여기서 잠깐! 시중에서 판매하는 30ml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다면 한 달 안에 모두 소진되어야 정상이다(하루 한 번씩 썼다면). 30ml 선크림을 한 달 넘게 쓰고 있다면 자신의 사용량을 늘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방수 기능(Waterproof)을

가진 선크림이라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꼭 덧발라 주어야 안심할 수 있다. 선크림만큼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 통하지 않는 화장품이니 넉넉히 사용하자.

**화끈화끈 피부 진정시키기**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피부가 화끈 거린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자. 먼저 클렌저로 피부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생 알로에나 감자, 오이 등을 갈아서 준비한다(혼합하라는 뜻이 아닌 1개만 갈아서 준비할 것). 얼굴에 거즈나 얇은 코튼을 올리고 그 위에 도포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씻어 낼 때는 먹고 남은 녹차 티백을 세안대에서 미지근한 물에 우려내어 행구어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천원짜리 마스크 팩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알로에 명가 '푸른화장품' 과 함께하는 여름 바캉스 특집 퀴즈 이벤트!  
**문제)** 태양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고 민감해진 피부를 부드럽게 달래주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① 팥빙수      ② 알로에      ③ 에어컨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응모하세요!  
 추첨을 통해 정답자 10분께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우송해 드립니다!



**<응모방법>**  
 '이름/ 연락처/ 주소/ 정답' 을 적어 cosmen@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군인일 경우 계급과 사서함 주소를 적어주시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당첨선물>**  
 알로에와 솔잎 성분이 함유된 푸른화장품의 베스트 셀러인 소르비티 5종 세트를 드립니다. 폼클렌저, 스킨토너, 수분크림, 나이트크림, 선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한안내>**  
 응모기간 : 6월 1일 ~ 7월 15일까지  
 당첨자 발표 : 당첨자에게는 주소 확인을 위해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이 가며, 월간 「공군」지 8월호를 통해 당첨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 Hot SKETCH



## ◎ 1비 초도순시 및 지휘비행

참모총장은 5월 13일 제1전투비행단 초도순시 및 고등 훈련기인 T-50으로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조종사와 정비사 간담회를 갖고 “공군 재조형의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 행동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실용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실질적 성과 위주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사우디 공군사령관 방문 행사  
참모총장은 5월 6일 한·사우디 양국 공군간 군사교류를 위해 공군본부를 방문한 압둘라흐만압둘라흐만 빈 파드 빈 파이잘 알사우드(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사령관의 계룡대 방문 행사를 주관했다.

◎ 미 공군참모총장 접견  
참모총장은 5월 10일 해외 주둔 미 공군 부대 방문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슈왈츠(Norton A. Schwartz) 미 공군 참모총장과 접견 후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 공군간 우정을 다졌다.



◎ 썬벨 요양원 위문  
참모총장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논산시 은진면에 위치한 노인 전문요양시설인 \*썬벨 요양원 을 방문하여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들을 찾아 위로했다.  
\* 썬벨 : Saint Paul, '성 바오로'를 의미함



◎ 제주관제대대 대비태세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5월 4일 최남단 영공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관제대대의 공군 재조형 및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제주관제대대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완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 한·미 공군간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훈련 실시



- 한·미 연합공군 주요 항공전력 참가
- 실전적 훈련을 통해 연합공군 운용능력 극대화

글·사진 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



**작**전사령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09년 한·미 공군간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훈련을 시행했다. 군산 미군 비행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 간 연합작전 능력과 대량공격편대군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5월 첫째 주 참가병력 전개를 완료하고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였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훈련은 미 공군의 RED FLAG 훈련을 벤치마킹하여 한·미 공군간 연 2회씩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실전상황을 묘사하여 항공기 승무원 및 정비, 무장, 관제요원들이 전시절차를 숙달함으로써 한·미 연합공군의 실전적 임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 공군은 최신예 F-15K를 비롯하

여 KF-16, F-4E, RF-4C, F-5 등 주요 항공자산이 참가하며 주한 미 공군 역시 주력 기종 F-16을 비롯해, 태평양 지역의 미 공군기지에서 F-15C 등 한·미 연합 항공전력 70여대가 투입되었다.

과거에는 참가전력이 해당기지에서 이륙하여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최초로 한국 공군 전 참가전력이 한 기지에 전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공군의 전개작전 수행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항공전력만이 아니라 정비부대 또한 군산기지에 전개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항공정비 전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훈련의 전체 임무편대장을 맡은 제11전투비행단 박상군 소령은 “한·미 연합공군 간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연합공군 운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완벽한 영공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㉞

# 아주 특별한 선생님들의 특별한 하루

- 교육사령부, 스승의 날 맞아 「교관의 날」 행사 개최
- 항공과학고 학생들, 군인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 증정

글·사진 교육사령부 정훈공보실

**교**육사령부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5일 항공우주시대 정예공군인 양성의 주체인 교관 및 훈육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교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교관의 날」 기념행사는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기념행사는 軍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고교과정인 항공과학고 총학생회 학생들이 특별한 군인 선생님들인 사령부 지휘관·참모 및 항공과학고 교직원들에게 카네이션을 증정하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기념행사는 장교교육대대 강당에서 항공과학고를 비롯한 각 특기 학교 교관 및 훈육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교관과 교육생이 함께하는 단체운동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교육사 내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대와 개인에게 비성장학 연구재단에서 포상금을 전달하였는데, 기본군사훈련단(최우수)과 방공포병학교(우수)가 우수부대로 선정되었으며, 행정학교 구재관(최우수 교관) 중위와 훈련단 김승휘(최우수 훈육관) 중사를 비롯한 12명의 교관·훈육관이 포상을 받았다.

비성장학 연구재단은 지난 1995년 (주)SK-텔레콤에서 교육사 발전을 위해 기부한 1억원의 기금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매년 스승의 날(교관의 날)을 기념하여 우수 부대와 교관을 심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교관의 날」 기념행사는 교관과 교육생이 함께하는 단체운동으로

막을 내렸다. 축구, 족구 등 서로 몸을 부딪치는 단체운동은 교관과 교육생이 따뜻한 사제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기념식에서 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공군인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관과 훈육관의 말과 행동이 교육생들의 지침이 되어 전 공군으로 퍼져나가게 됨을 자각하고 군인정신이 깃든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공군 재조형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AIR FORCE NEWS

## 공군은 지금



◎ '방공포병'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방포교 '역사실'로 가라  
방공포병학교는 5월 1일 부대 참조관 1층에 방공포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역사공간인 '방포교 역사실'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 공사, '09년 어버이날 행사 개최  
공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학부모 1,0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효(孝)의 참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어버이날 기념식을 지난 8일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생도들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 작성한 감사의 글 낭독을 비롯하여 케네

이션 증정, 어버이날 노래 제창, 생도 퍼레이드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생도들은 각자의 부모님께 직접 케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퀴즈대회 및 부모님 업고 달리기,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 사랑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 제18전비, 항공기 세척시범  
제18전투비행단에서는 5월 14일 105정비중대 세척장에서 항공기 세척 시범행사가 있었다. 간이 세척장 환경 개선에 따라 좀 더 나은 세척 환경을 구축하였고 항공기 세척의 중요성과 재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이날 시범행사는 세척절차 및 시설 현황 보고, 세척 시범(세척→건조→윤활), 지휘관 훈시로 진행되었다.



◎ 제8전비, A-37B 페루 이양 실사단 부대방문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5월 7일 A-37B 항공기 페루 양도 관련 항공기 실사가 있었다. 이날 실사는 페루 국방부 국제협력국장, 페루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주한 국방무관, 공군본부 일반군수처장, 기술요원 4명 등 페루측 9명이 실사를 하였으며, 실사 중점으로 A-37B 도태항공기의 가동성 여부, 정비상태, 저장관리실태, 수리부속, 기술자료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A-37B 도태항공기는 무상으로 페루에 양도된다.



◎ 복지단, 성년의 날 행사  
복지단에서는 5월 18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들을 축하격려하고, 성년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최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성군관에서 주관하여 옛 성년례를 전통 재현함으로 장병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방포사, 지상사격장 정화활동 실시

방공포병사령부는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 산재한 예하 방공포병 부대의 지상사격장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상사격장 정화활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 발맞추어 방공포병사령부가 수립한 계획으로, 부대는 지상사격장에 남아있는 폐탄두를 수거하여 토양오염 요소를 제거하고 사격장 주변 환경을 정화하여 환경보호와 창의적 부대관리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부대는 이번 정화활동을 계기로 하여 매년 봄·가을에 실시되는 전투진지 보수공사 시 사격장 정화활동을 병행하여 사격장 피탄지역의 폐탄두를 정기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 제15혼비, ARF 자발적 재난대응훈련 공수기 귀국

5월 12일, 필리핀 루손 섬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자발적 재난 대응훈련' 참가 후, 이날 귀국한 255대대원과 공군의료진, 소방방재청 응급구조팀을 격려하는 행사가 열렸다. 단장을 비롯 지휘관·참모, 255대대원, 항공의무대대원, 정비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군과 소방방재청 요원들이 필리핀 루손섬의 사망 바토 지역에서 1,500여 명의 현지인들을 치료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안전하게 공수임무를 완수한 255대대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 군수사, 어려운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 위한 '나눔 장터' 열어

군수사령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 '나눔장터'를 열었다. '나눔장터'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마련된 일종의 자선 바자회로서 대구 기지에 근무하는 장병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물품을 수집,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계획되었다. '나눔장터'의 수익금 약 70만원을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에 사용할 계획이며, 판매 후 남은 물품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된다.



◎ 29전대 192전술개발비행대대, 21년 연속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5월 27일,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에서는 192전술개발비행대대의 21년 연속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192대대의 21개년 무사고 비행기록은 최정예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고난도·고위험의 실전적 전투훈련 임무를 수행해 오면서 1988년 창대 이후 무려 21년에 걸쳐 이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인생역전이란?

글 대위 유선의 | 발포사 정훈공보실 사진 Formos

## 누구나 꿈꾸는

로또 당첨, 재벌 손자(혹은 손녀)와의 결혼, 고시 합격, 주식폭등... 이런 인생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누구나 한번은 꿈꾸게 마련인 강인한 유혹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 정설이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낫다는 로또 당첨을 꿈꾸기보다는 어쨌든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조금이나마 바꾸어 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경험으로 말해주고 있다.

공군에이스를 응원하면서 나도 허황된 상상을 했던 적이 있다. 최근 잘 나간다는 택뱅리쌍(김택용, 송병구, 이제동, 이영호)이 차례대로 입대한다든가, 육룡(김택용, 송병구, 허영무, 윤용태, 김구현, 도재욱)이 동반입대해서 공군 프로투스 군단을 만든다든가, 공군에이스가 SKT를 인수합병(??...-\_-;)한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

하지만 최근 공군에이스의 분위기는 육룡 동반입대 그 이상이다. 역시 불가능한 헛된 상상에 빠져 허우적대기 보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공군에이스다. 4라운드 전적 5승 4패(5월 19일 현재)로 4라운드 성적만 놓고 보면 포스트 시즌 진출이다. 스타리그 진출자 2명(비록 박태민 선수가 어이없는 심판 판정으로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의 남부럽지 않은 개인전 카드까지.

위너스 리그에서 연전연패하던 공군에이스를 상상한다면 4라운드의 이런 변화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공



공군에이스의 이런 '인생역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 확실한 1승 카드 박태민의 합류

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역시 공군에이스의 4라운드 승리공식에는 '운 영의 마술사' 박태민이 자리하고 있다. 군 생활 적응이 끝나기도 전에 스타리거가 되더니, 프로리그에서도 5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입대하기 전보다도 나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박태민의 합류가 공군에이스 성적 수직 상승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주 박태민 선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공군에이스 성적이 좋아진 이유를 물었더니 "원래 잘하는 팀이었는데, 성적이 안 나왔던 것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럴 수 있다. 프로게이머들 사이에도 '연습최강'이 존재한다고 한다. 팀 내에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도 방송에만 나가면 힘 한번 못써보고 패하는 선수들을 말한다. 공군에이스도 군에 입대해서 실력이 줄었다 기보다는 '이기는 방법'을 잊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초반에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공군에이스는 항상 지는 팀이라는 생각이 다른 팀뿐만 아니라 공군에이스 내부에도 알게 모르게 형성되다 보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졌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에 박태민 선수의 이런 분석이 맞다면, 공군에이스의 미래는 더욱 밝다. 왜냐하면 '우승자 출신'이 어느 팀보다도 많은 공군에이스는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팀이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 선수들이 우승할 당시의 포스를 되찾기만 한다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박태민 선수의 합류가 공군에이스의 본 모습을 찾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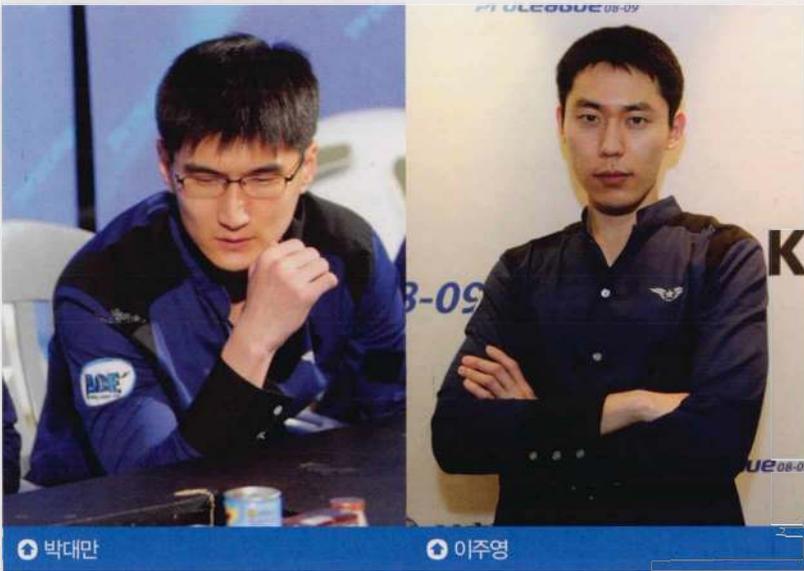
### 믿을맨 오영종의 존재

공군에이스에는 임요환이 있었다. 우리나라 e스포츠의 대표 아이콘이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선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안정감이 있는 선수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부족함을 채워준 것이 '사신' 오영종이다. 공군에이스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50%의 승리를 항상 챙겨주었다. 늘 '연습상대의 부족'을 호소하는 오영종이 기복 없이 일정 승수를 챙겨주면서 공군에이스에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공군에이스가 좋은 성적을 거둔 적도 없었지만, 그동안 승리를 거둘 때는 '영웅'과도 같은 선수들이 있었다. 공군에이스 초반기에는 성학승이 '승리의 성일병'으로 불리며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팀플에서는 '조형근-김환중' 혹은 '조형근-이재훈' 조합이 좋은 승률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였을 뿐 그 선수들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다시 연패에 빠지고, 또 다시 분위기 좋은 선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오영종이라는 A급 선수가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프로리그에서의 1승을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이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일단 2:2를 만들고 에이스결정전에 다시 출전해서 이겨주는 선수. 그게 최소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공군에이스에는 1승을 거둘 수 있는 선수가 2명 이상이었던 경우가 별로 없었다. 오영종의 합류로 이러한 점이 해결되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박태민, 이주영, 박정석, 한동욱 이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주면서 공군에이스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게 되었



다. 안정감 그리고 단단함으로 표현되는 서지훈의 합류로 공군에이스의 이런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주영, 박대만의 활약

공군에이스의 왕고 이주영, 박대만은 이제 전역을 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말년병장' 들이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군 생활 막바지에 화려하게 불꽃을 태우고 있다. 박대만은 리버신을 강림시켜 리버 1기로 31킬을 기록하며, N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이주영은 이영호, 김상욱 등 잘나가는 선수들을 연파하며 팀 승리를 이끌고 있다.

오영중, 박정석, 한동욱 등 팀의 주축인 선수들이 활약하고는 있지만, 홍진호, 차재욱, 서지훈 등 신참들이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보여주는 고참들의 활약은 공군에이스로서는 정말로 반갑다. 특히 이주영은 저그전에서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고, 에이스결정전에서도 승리하는 등 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공군에이스에 왔던 선수들이 대체로 입대 초기나 초중반에 '반짝 활약' 을 보여주다가 군생활 막판에 그 빛을 잃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주영과 박대만의 경우는 공군에이스에서 그 의미를 찾는 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군에이스는 단순히 '프로게이머들이 군생활하는 곳' 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재능을 더 키우고, 하고자 하는 일을 군생활 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임요환, 김환중 등 공군에이스 생활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복귀하여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즉시 전력으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그 빛이 바래고 있다. 하지만 이주영의 경우는 지금 어느 팀에 가도 주전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인생역전

'인생역전' 하면, 사람들은 흔히 '한 방' 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인생역전이 아니다. 물론 한 방으로 인생역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의 노력을 통해 기회를 잡고, 인생역전을 이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공군에이스가 전에 없는 활약을 보여주며 비상(飛上)할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지난 1, 2, 3라운드 혹은 지난해에 보여주었던 공군에이스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 감개무량(感慨無量),

그리고 인생역전(人生逆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것이 어느 한 선수의 기량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움직여서 만든 성과라는 점이다. 노력과 인내의 대가로 이루어진 공군에이스의 '분위기 반전' 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



# 기적의 배 / 빌 길버트 원저, 안재철 편역

- 6·25전쟁 최고의 휴먼 드라마 '홍남철수작전' -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이번 호에 소개하는 책은 59년전 이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 하나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의 여름, 가을, 겨울은 당시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 모두에게 가장 끔찍하고 힘들었던 계절이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는 위기로부터 인천상륙 작전의 성공과 압록강까지의 복진,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과 긴박한 후퇴가 바로 이 세 계절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육군 6사단이 압록강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치며 통일을 목전에 두었다고 느끼는 시점에 시작된 중공군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던 미군은 썰매를 쳐대며 엄청난 병력으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에 밀려 퇴로를 차단당하며 고립됩니다.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동해 바다로만 열려있었고 그 길목에 바로 홍남부두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홍남부두에...”로 시작되는 전쟁가요 ‘군세어라 금순야’는 바로 이 홍남 철수작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아군을 구출하기 위한 193척의 전함과 상선, 그리고 항구를 가득 메운 10만명의 미군과 9만 8천여명의 피난민이 운집한 홍남부두의 전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처음에 미군은 피난민들을 함께 구출할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군에게 그들은 적국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바다에 정강이를 적시며 아이들 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전사에 기록될 20만명의 해상탈출이라는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배가 마지막 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난민들은 배를 타지 못할까 극도로 불안해했고 운집한 군중 속에서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 징집된 상선(商船)인 ‘메리디스 빅토리’ 호의 마리너스 레너드 라루 선장은 자신의 배가 피난민을 실을 마지막 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아직도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서있었습니다. 그는 47명의 승조원밖에 생활할 수 없는 이 상선에 모든 피난민을 태우기로 결심합니다. 갑판부터 선박 하부의 화물창까지 뺄뺄이 채운 인원은 14,000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잔류 인원 모두를 태운 것이지요. 그들 평생에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마침 이들이 출항한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이 배가 거제도에 도착하기까지 3일간의 항해 동안 피난민들은 식수도 식량도 화장실도 없는 배안에서 침묵 속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한 척의 호위함도 없이 기뢰를 피해가야만 하는 그들의 항해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승선한 피난민 모두가 무사했음은 물론 다섯 명의 아기가 그 배안에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분명 기적 같은 일이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날 홍남부두에서 자신을 태워 주기를 기다리며 미군 함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을 피난민들의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의 시각에서 바라본 홍남철수작전과 당시 한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진 6·25전쟁이 새롭게 평가되고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

## SPACE POWER

## 스페이스 파워

- 공군병사들은 통신 채널이 원활히 운용되도록 한다 -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김원봉

**카**메론 크루즈 상병은 우주인이다. 그러나 그는 우주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우주복을 입지도 않고, 또 우주선을 타고 다니지도 않는다. 사실 그는 지구바깥으로 나가본 경험조차 없다. “전 우주비행사가 아닙니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크루즈 상병이 우주유영을 하거나 고장난 우주왕복선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미 공군의 우주에 관련된 노력에 기여하는 바는 그 못지않다. 그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슈리버 공군기지의 제4우주작전 대대의 초고주파 위성 운용자다. 또한 매일 공군의 우주 부대의 가장 중요한 통신위성체계 중 하나인 밀스타 성좌의 운용을 지원한다.

다섯 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밀스타 성좌는 정지궤도(geosynchronous orbit)에서 위치해 있으며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강건한 통신 능력을 전 세계의 미군에게 제공한다. 지표상 22,000마일 위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성좌는, 총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를 미군의 합동 군에 제공하고 음성, 데이터, 이미지 등을 전송할 수 있다. 핵무기에 대비하고 전파방해 방지가 되어 있는 이 성좌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및 전투사령부급 사령관들을 지원하여, 국가의



에舍利 리스크 일병. 콜로라도주의 슈리버 공군기지의 제4우주작전대대 우주 지상링크체계 운용자이다. 그녀는 밀스타 위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미군의 합동 군에 보호된 전 세계적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필요시 그녀는 인공위성을 작동하여 올바른 운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지상 기동부대에서, 우주 지상 링크 체계 운용자인 카메론 크루즈 상병은 22,000마일 상공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밀스타 인공위성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답하고 있다. 밀스타 성좌의 지휘 및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나온 것과 비슷한 재래식 트랙터-트레일러 트럭 같은 기동부대를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팀들의 일원으로서, 운용자는 최고의 실력을 구비하고 전투 절차 등의 추가적 지식을 가져야 하며 트럭 운전자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략적 전력의 지휘통신 능력에 기여한다.

크루즈 상병의 임무는 이러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제 주된 임무는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 임무는 그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대 작전본부에 있는 모든 인원들은 동일한 임무를 부여 받은 다른 공군 장병들이다. 우리는 이 인공 위성들이 주어진 기능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발휘하도록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밀스타 체계와 지상의 안테나의 상태와 수명을 모니터합니다. 이 위성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도록 하며 모든 부품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위성 운용자인 에舍利 리스크 일병이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임무다. “만약 이 체계가 다운되거나 연결을 잃는다면, 이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장병들의 임무수행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4우주작전대대의 제스퍼 플랫폼 상병은 “이러한 것은 그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작전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 우리는 이를 고치고 저해요소를 제거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슈리버 공군기지의 장병들은 수십 억 달러의 고성능 장비와 매일 작업한다. 이 장비들은 국가에게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한다. 또 공군장병들도 경험과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며 평균 나이 스무 살, 전문학교를 갓 졸업한 초년병들이다.

경험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으나, 이들은 전문성에 있어서 이를 보완한다. 우주사령부의 차장인 제이 무디 대령은 “이런 젊은 공군장병들이 이 위성들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공군에 지원하는 인적자원과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가지게 될 공군병으로서 훈련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군장병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수천 만에서 수십 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운용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인공위성의 가치는 운용자들에게 큰 고려사항은 아니다. 그들은 나이나 경험 또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주어진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국가의 군사와 민간 통신 능력에 기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고민이다.

그들의 기여는 공군 전체로 전달된다. 우주사령부 주임원사인 리처드 스몰 원사는 “우주체계 운용 병사들의 기여는 믿을



큰 임무를 지니고 있는 젊은 병사들-키메론 크루즈 상병은 현존 밀스타 인공위성체계를 지원하는 운용자이다. 에舍利 리스크 일병과 제스퍼 플랫폼 상병은 새로 개발되고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팀의 일원들이다. 모두 콜로라도주의 슈리버 공군기지에 있는 제4우주작전대대에 배치되어 있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젊은 병사들은 콘솔에 하루 24시간, 일년 356일 앉아 우리의 우주체계가 설계된 목적을 따라 작동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또 인공위성 운용 병사들은 국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스톨 원사는 “이 공군장병들은 말 그대로 군사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작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체계의 통제 능력을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임무는 과중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전쟁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 하나의 버튼이 전장에서의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부담에 무게를 더한다.

“이 임무는 생각해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인명, 그리고 인공위성들이 의도된 바로 작동하도록 하는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지원하는 다른 사람들 등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을 더 생각합니다”라고 크루즈 상병이 말한다. 이러한 의견은 크루즈 상병의 동료들도 동일하다. “이 방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것은 좋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라고 리스크 일병은 전한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인공위성 운용자들은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공군 장병들은 통신 위성, GPS 위성 또 방위 위성까지 매일 운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내는 업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GPS 또는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공군 장병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라고 무디 대령이 말한다. 하지만 운용자들은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별 상관하지는 않는다.

플렛 상병은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고 말한다. 우주정류장 발사와 유도 정밀탄 모니터링에서 기상을 예견하고 위성 라디오 수신하는 것까지, 인공위성들은 군의 리더들과 민간인들에게 중요한 능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국가의 가장 비싸고 중요한 통신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크루즈 상병의 일상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주복도 입지 않고 로켓 선에 앉아서 대기권을 벗어나 보진 못했어도, 크루즈 상병이 우주인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④



제스퍼 플렛 상병은 제4우주작전대대의 우주 지상링크훈련 셀에서 직능 훈련을 받고 있다. 23살의 플렛 상병은 부대의 직능 평가자 중 하나이다.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심자!  
공군만의 특성화 청소년 캠프



# 2009 공군항공우주캠프



### ▶ 캠프안내

기간 : 2009. 7. 27.~7. 30.(3박 4일)  
장소 :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 남·여 80명  
주최 : 대한민국공군, 한국항공소년단

### ▶ 참여안내

- 한국항공소년단 홈페이지  
'공군항공우주캠프' 행사 참가 \* 신청서 다운  
→ 팩스, 우편, 메일(yfk@yfk.or.kr) 접수

- 문의 : 02) 953-7543  
- 접수기간 : 2009. 5. 18.(月)~6. 12.(金)  
- 선발방법 : 참가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참가자 확정 및 공지 → 참가비 납입 → 캠프 입소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

## 2008 공군항공우주캠프

### ▶ 주요프로그램

#### 〈항공관련〉

항공기초이론, 항공과학실험(풍동실험실), 모형항공기 제작, 항공생리훈련 및 거제행대대 견학, 비행체험(C-130탑승)

#### 〈우주관련〉

우주에서의 생존(팀파워 활동), 우주특강(체험 및 동영상), 우주탐사로봇 제작 및 견학

#### 〈기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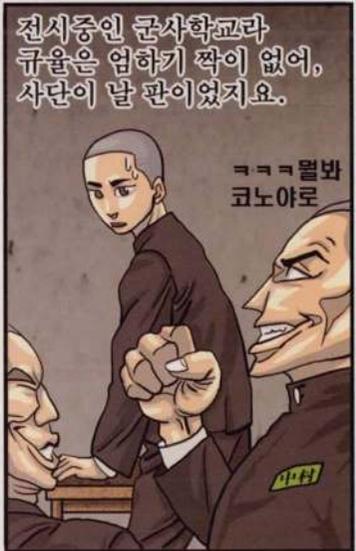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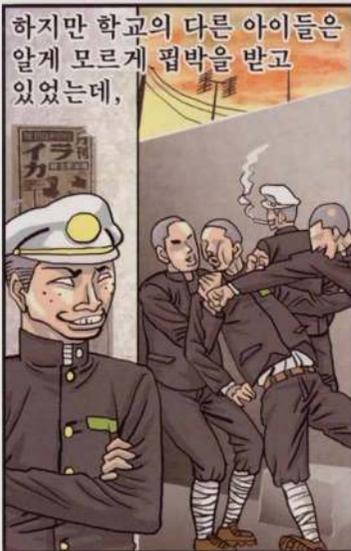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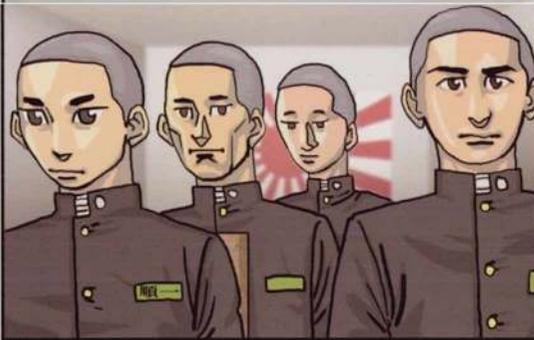
지·해상 생존 및 구조 훈련, 암벽등반, 해상생환 및 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구조훈련견학, 사관생도와의 만남, 레크리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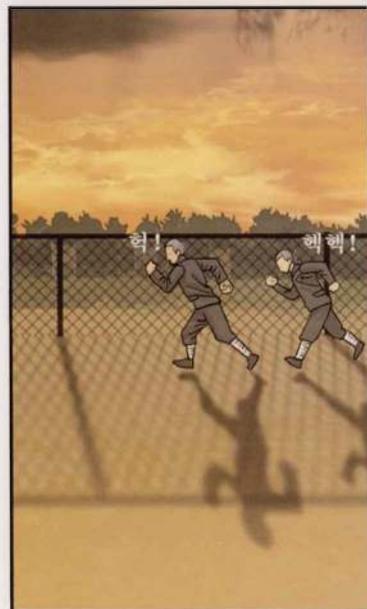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부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차대전 당시 연합군의 전투기를 18대나 격추시킨 그이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6월의

# 공군역사

자료제공 공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항공안전관리단 창설(1995년 6월 1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안전관리로 현존전력을 보존하고 전력증강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안전교육대(교육사령부 기술학교)를 해체하고 1995년 6월 1일 공군본부 직속기구로 항공안전관리단을 창설했다.

3개처(교육처, 연구처, 안전관리처)와 1개과로 첫 출발을 시작한 항공안전관리단은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연구, 사고조사, 안전진단, 교육 등의 임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주둔지인 진양기지(교육사령부)가 실무부대(비행단)와 이격되어 유기적인 업무연계가 곤란하고 부지가 협소하다는 단점 등으로 인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항공안전관리단은 군내·외 및 학계, 연구기관과의 연계성과 항공안전 전문기구로서의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중부지역 이전을 결정하였으며 2004년 7월 30일 평택시대를 열게 됐다.



항공안전관리단 창설 후 이기현 교육사령관과 장병들의 기념촬영 모습



현재 RF-5A 항공기는 RF-4C와 함께 우리 군의 항공정찰 및 항공사진 정보 지원임무를 책임지고 있다.

## RF-5A 항공기 도입(1972년 6월 13일)

1958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RF-86 항공기를 대체하고 독자적인 정보수집체제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하여 1972년 6월 RF-5A 항공기를 군원으로 도입했다. F-5A와 동일한 플랫폼(Platform)에 전방 및 측면정찰용 파노라믹 카메라인 KS-92A를 장착한 RF-5A 항공기는 우수한 정찰능력과 기체성능을 겸비하였으며 1973년부터 1977년에 걸쳐서는 특수비행팀

Black Eagles의 주력 기종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 C-123K 수송기 도입(1973년 6월 15일)

1970년 초반까지 운영하던 C-54D와 C-46D 수송기는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는 공수 소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1973년 8월 7일 공군본부 참모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안 뜨는 것이 좋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할 정도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여 공수전력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특



'87년 팀스피리트 훈련의 일환으로 성환 비상활주로에 착륙중인 C-123 수송기



히 C-46D 수송기의 경우는 기체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로 인해 대비(對非)정규전, 대간첩작전, 인원 및 화물공수, 심야 해상초계 비행 등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신예 수송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울곡계획에 총 16대의 C-123K 수송기 도입계획이 반영되었다. 1973년 6월 15일 최초로 도입이후 우리 공군의 주력 수송기로 한 시대를 풍미한 C-123K/J 항공기는 1990년 초반에 퇴역하였다.



HH-32 헬기의 도입으로 우리 공군의 탐색구조 전력은 다양한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사진은 수상구조 훈련중인 HH-32)

### HH-32(Ka-32A) 헬기 도입(2004년 6월 19일)

HH-32 헬기는 러시아 경협 차관에 대한 현물상환계획(불공 2차사업)에 따라 도입한 기종으로 최대탑승인원 18명(조종사 2명 포함), 화물탑재능력 5톤, 최대 4시간 30분의 체공이 가능하며 전천후 항법장치와 해상 수색레이더를 장비한 다목적 탐색구조용 헬기이다.

러시아 KumAPE社에서 제작한 HH-32 헬기의 원명칭은 Ka-32A로서 우리 공군은 타 기관에서 운영중인 Ka-32(산불진화 및 화물공수용)와 혼동을 방지하고 항공기 호칭시 적·아 식별을 위하여 일련번호(32)는 기종명칭과 동일하게 사용하되, 개량임무부호와 기본임무부호는 각각 Search &

Rescue를 의미하는 H와 헬기의 기본임무를 의미하는 H를 부여하여 HH-32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다.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HH-32 헬기를 도입하여 전·평시 탐색구조 및 전술공수 임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235비행대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 6·25전쟁 발발(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어둠을 깨뜨리고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하였다. 개전초기 단 한대의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했던 공군은 L-4/5<sup>1)</sup>, T-6(건국기) 등 가용한 항공기를 총동원하여 적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수류탄과 폭탄을 가슴에 품고 출격을 감행하였으나 전투기의 빈자리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모든 측면에서 적군과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필승의 신념하에 하나된 공군장병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최용덕 장군 지휘하에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조직하여 북한군과 일전을 각오하였고, 비무장의 경항공기로 위험을 무릅쓰고 정찰비행, 연락업무 등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등 항공공국을 향한 공군의 열정과 의지를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아군의 공격으로 고철이 되어버린 북한군 T-34 탱크

이후 미군으로부터 F-51전투기를 인수한 우리 공군은 승호리 철교폭격, 평양대폭격,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등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수립하는 한편 L-4, L-5, T-6 항공기로는 정찰 및 연락임무를 수행하여 지상군 작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㉔

1) 우리 공군의 L-4/5 항공기는 전쟁전부터 공비토벌 및 여순반란 진압작전 등에서 항공정찰, 전단살포,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월간 「공군」 2009년 3월호 (3월의 공군역사) 코너에 실렸던 'C-54D 소송기 퇴역' 기사 내용 중 11,423명의 전상환자를 공수했다는 부분을 3,853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1

#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5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의 편집실



2

## F-51 무스탕 전투기

1942년에 최초로 비행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Mustang이란 별명으로 위용을 떨쳤던 프로펠러 전투기이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L-4/5 및 T-6 항공기로는 남하하는 북한군 탱크를 파괴할 수 없었다. 이에 미 극동군사령부에 전투기 원조를 요청하여 1950년 6월 26일 공군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을 포함한 10명의 조종사를 일본의 이다즈게 기지로 파견하였고 단기간의 F-51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친 이들 조종사들은 7월 2일 F-51 전투기 10대를 직접 조종하여 현해탄을 건너 1950년 7월 2일 대구기지에 도착하였다.



3

1950년 7월 3일 대구기지에서 출격을 개시한 F-51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총 130여대를 인수하였으며 평양, 미림, 강릉기지로 이동하면서 휴전 시까지 후방차단 및 근접항공지원 작전 등 8,500여 회를 출격하여 눈부신 전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쟁 중인 1952년 1월 15일 미 공군이 500회 이상 출격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을 본 항공기로 불과 2회의 단독 출격으로 성공시켜 대한민국 공군조종사의 용감성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1957년 6월 27일 F-51 전투기는 공군의 제트화 계획에 따라 퇴역되었다.



4

## F-5A Freedom Fighter

자유의 투사(Freedom Fighter)라는 별명을 가진 본 항공기는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T-38 Talon 항공기를 토대로 제작한 1인승 전투기입니다. 최고속도 마하 1.44에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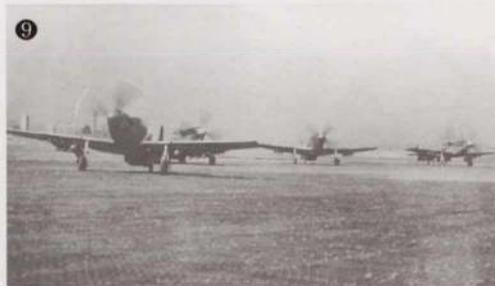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기동성능이 무척이나 뛰어난 전투기로서 북한군이 F-86F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MIG-17과 MIG-21 전투기를 보유함에 따라 신예 항공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1965년 4월 30일 도입된 전투기입니다.

F-5A 전투기는 초음속 전투기 시대를 열은 기체로 F-4D 전투기 도입 전까지 기존 F-86F 전투기를 대체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전투기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공중요격과 지상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F-4E 및 F-16C 전투기와 같은 신기종이 추가로 전력화됨에 따라 고등훈련 및 작전가능과정 용도로 전환되어 훈련기로 운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곡예비행팀인 Black Eagles의 주력기종으로 활약하기도 한 F-5A 전투기는 F-16, F-4 전투기와 더불어 영공방위의 핵심적인 삼각편대를 이루어 한 시대를 풍미하였으며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라는 수식어를 남긴 채 2005년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㉞

- ① 제주기지에서 비행훈련 중 조종사들이 F-51 항공기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 ② 제주기지에서 F-51 항공기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공군 조종사들 모습
- ③ 1950년대 항공기 훈련을 마치고 F-51 항공기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 ④ 강릉기지로 전진배치된 F-51 항공기들이 강릉기지 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는 모습
- ⑤ 한국전쟁 당시 조종사 비행훈련을 위해 주기장에 주기된 F-51 전투기 편대가 출격을 준비하는 모습
- ⑥ 전봉희, 주영복 조종사가 F-51 항공기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 ⑦ F-51 200회 출격기념 마크
- ⑧ F-51 무스탕편대
- ⑨ F-51 이륙준비
- ⑩ 전투조종사들이 긴급 출동을 위해 F-5A 항공기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 ㉞ 장병들이 F-5A 전투기에 무장을 장착하는 모습
- ⑫ 美 해군기지에서 항공모함에 F-5A 20대가 탑재되어 1965년 4월 5일 경남 진해항에 입항
- ⑬ 국군의 날 기념 공군전시(에어쇼)에서 F-5A, T-33, F-86D, F-102 항공기가 우정 비행하는 모습
- ⑭ 경부고속도로 대전-부산간 개통식 및 언양 비상활주로 개통식에서 비상활주로 이·착륙 시범훈련을 실시함



# 연필의 다섯 가지 교훈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단어 타이틀매치〉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지음

<http://blog.naver.com/midomiho>

## 파울로 코엘료의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

파울로 코엘료는 초특급 베스트셀러작가이지요. 〈연금술사〉, 〈11분〉, 〈오 자히르〉, 〈포르토벨로의 마녀〉 등 그의 모든 책이 세계적으로 1억 권 이상 팔렸다고 하니 '초특급'이란 수식어도 작아 보일 정도이군요. 그런 그가 2006년에 산문집을 한 권 냈는데요,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 Like the Flowing River' 입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아주 값진 산문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연필에 관한 교훈이 담긴 글입니다.

### 연필의 다섯 가지 특별한 교훈

편지를 쓰는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손자가 묻습니다. "우리가 해 온 일들에 관한 글을 쓰는 거야? 나에 관한 글이야? Are you writing a story about what we've done? Is it a story about me?" 글쓰기를 멈추고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네 이야기이긴 하다면 글보다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사용하는 연필이란다. 너도 자라서 이 연필 같은 사람이 되렴. I am writing about you, actually, but more important than the words is the pencil I'm using. I hope you'll be like this pencil when you grow up." 그러자 손자가 또 묻습니다. "내가 봐온 연필들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은걸. 특별해보이지 않아. But it's just like any other pencil. It doesn't seem very special." 할머니는 '중요한 것은 사물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That depends on how you look at things.' 에 달려있다고 말해줍니다. 덧붙여 할머니는 우리를 '조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연필의 다섯 가지 특성을 손자에게 들려줍니다.

### 연필을 이끄는 손과 연필을 깎는 칼

첫째, 연필을 이끄는 손 hand. "너에겐 큰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 만 연필을 이끄는 손처럼 너의 발걸음을 이끌어줄 손이 존재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 손이란 바로 주님이란다. You are capable of great things, but you must never forget that there is a hand guiding your steps. We call that hand God." 둘째, 연필 깎는 칼 sharpener. "고통과 슬픔을 참아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You must learn to bear certain pains and sorrows, because they will make you a better person."

### 지우개, 연필 심, 그리고 흔적

셋째, 지우개 eraser. "잘못한 걸 바로잡음으로써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단다. Correcting something we did helps to keep us on the road to justice." 넷째, 연필 심 graphite. "늘 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해. Always pay attention to what is happening inside you." 다섯째, 연필이 남기는 흔적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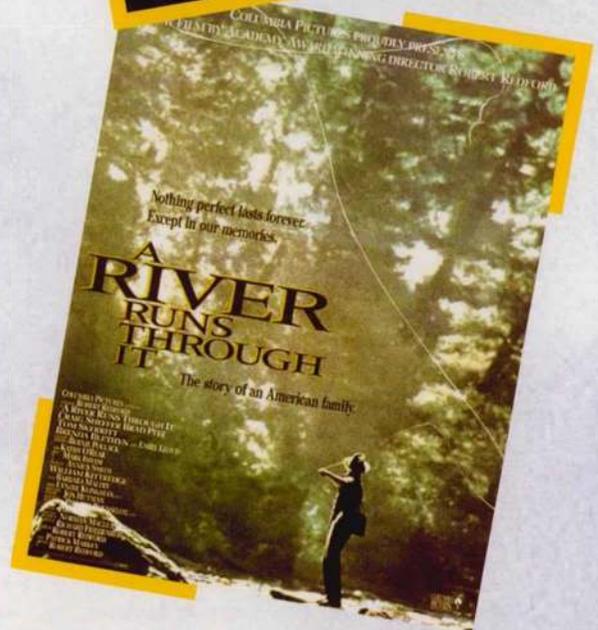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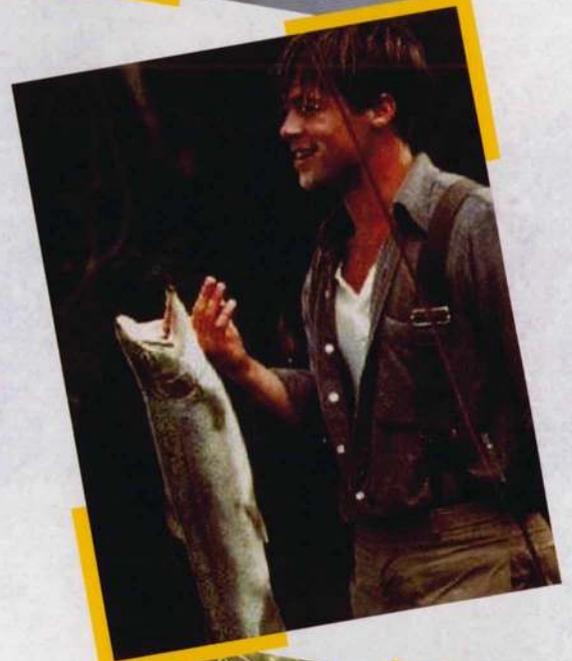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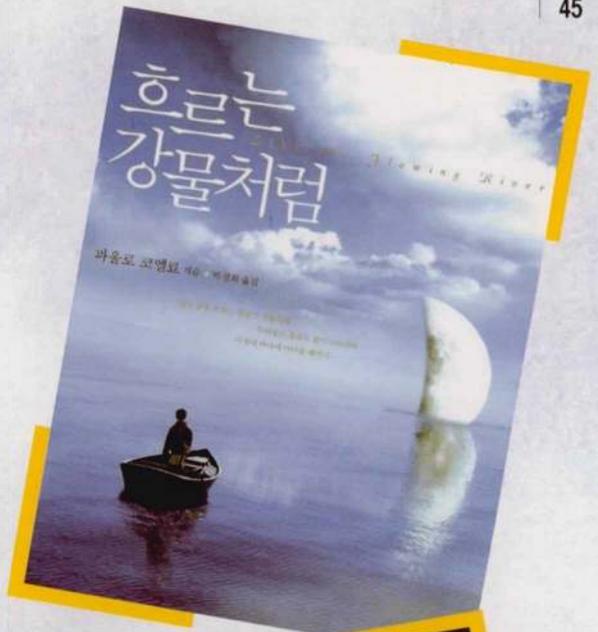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흔적을 남기므로 어떤 행동에서든 그 걸 꼭 명심해야 해. You should know that everything you do in life will leave a mark, so try to be conscious of that in your every action.” 저는 코엘료의 연필 교훈은 어쩌면 신이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둔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 누구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의 지혜이겠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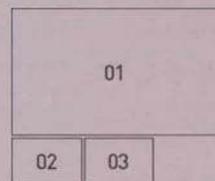
**로버트 레드포드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파올로 코엘료의 산문집 제목과 동명인 영화가 있지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하고 내레이션을 맡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 인데요, 영어 제목만 다릅니다. 미국 작가 노먼 맥클린이가 말년에 쓴 동명 자전적 단편소설을 각색한 작품이구요. <흐르는 강물처럼>은 우리가 연필의 교훈 다섯 가지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세상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얼마나 힘든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지요. 배경은 1900년대 초 몬태나 주. 노먼과 폴은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성직자이기에 둘은 어려서부터 ‘연필을 이끄는 손’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훗날 노먼은 영문학 교수가 되고, 폴(브래드 피트 분)은 기사가 됩니다. 형이 차분하고 사색적인 성격인 반면 폴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자 행동가입니다. 하지만 폴은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분방해집니다. 급기야 술과 도박에도 빠지지요. 그 결과 폴은 ‘만드시 지웠어야 할 흔적들을 남겨둔 채’ 어느 날 싸늘하게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신은 우리의 정직함에만 응답하신다**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날벌레낚시밥 낚시 fly-fishing’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두 형제가 시간만 나면 즐기는 유희이지요. 자연에 동화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낚시질을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하게 흐르는 계곡의 급류와 그 급류 속에 섞인 위험한 돌맹이들을 각오해야 하듯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도 그 흐름이 종종 제멋대로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철학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연필의 다섯 가지 교훈을 아우르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가 그 시련에 정직하게 대처할 때에만 주님도 응답하신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㉞





위 01 간월호 호수위를 무리지어 비행하고 있는 갈매기 무리들 아래 02 물갈퀴가 있어서 물위에서도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다 03 어부가 버리는 물고기를 물고 올라가는 갈매기

## 어부와 갈매기

천수만 간월호에서 어로 작업을 마친 작은 어선이 하얀 포말을 만들며 방조제로 향하자 갈매기들이 함성을 지르며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몇 마리밖에 보이지 않던 갈매기들이 어디에서 모여들었는지 순식간에 커다란 무리를 만들어 작은 어선의 뒤를 바짝 따라오며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

넓은 호수의 이곳저곳에 수없이 쳐 놓은 정치망에서 많은 물고기를 꺼내온 어부들이 방조제의 작업장에 도착하자마자 능숙한 솜씨로 물고기를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갈매기들은 이때가 모처럼 포식을 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물 속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잡혀 있었는데 크기가 작거나 오래되어 죽어 있는 물고기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대부분 호수에다 버리곤 하였다. 갈매기들은 이러한 어부들의 행동에 익숙해져 있어서 때를 맞추어 먹이를 먹으러 온다. 가끔 접하는 풍경이지만 그물로 인해서 물고기들 외에도 잠수성

오리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 물속에서 작은 어류들을 잡아먹는 비오리와 뿔논병아리들이 대표적인 새다. 물고기가 일단 그물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물속에서 먹이를 잡아먹는 잠수성 오리들은 그물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러 들어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해서 익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보면 영락없는 '새 대가리'라는 말이 실감난다. 시베리아 먼 곳에서 항법장치도 없이 이 먼 곳까지 찾아 온 영리한 새들이 이렇게 간단한 그물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잠수성 오리들은 공항이나 군 기지에 들어오지 않는 새들이기에 안타까움이 더하다.

물의 표면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갈매기들은 그런 위험 부담은 없다. 어부들이 물고기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곳 간월호에서 행해지는 어로 활동은 불법이지만 그 불법으로 인해서 갈매기들이 포식을 할 수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갈매기들이 우아하게 나는 모습을 보면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이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된다.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책 속에서의 주인공 조나단처럼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닌, 자신의 삶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계를 넘어서서 꿈을 성취하는 용기 있고 우아한 갈매기' 임에 틀림이 없다는 느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몸에 비해 커다란 날개로 여유 있고 아름답게 비행을 하기 때문이다.

여객선을 타고 바다 여행을 떠나 보면 새우깡 갈매기를 만날 수 있다. 최근 서해의 난지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배를 따라오는 갈매기들을 만나면 새우깡을 던져 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객선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갈매기들이 쫓아오고, 사람들이 새우깡을 손에 들고 있으면 겁도 없이 손에 있는 새우깡을 채가곤 하여 이제는 원래의 이름보다 새우깡 갈매기로 잘 알려진 꿩이갈매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갈매기들은 사람들과 친숙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특히 어부들이 어로 작업을 할 때 가까이 와서 어부들이 던져 주는 먹이를 주워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모든 바닷가의 포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매기는 어쩌다 바다를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추억과 낭만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하지만 어류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과 바다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와 민간항공의 안전요원들에게는 천적과도 같은 존재이다. 조심성이 없는 양식어종을 수시로 잡아먹어 피해를 입히며, 한해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는 '수인성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고, 항공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기지에 진입을 하면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 그 어느 조류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 갈매기의 생태

도요목 갈매기과의 이 새는 일반적으로 몸길이 30~75cm로 머리 아래쪽은 백색, 등과 날개는 회색이다. 날개는 길고 끝 쪽은 검고 흰점이 있거나, 흰 테두리가 있다. 꼬리는 짧지만 넓어서 먹이를 발견했을 때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부리는 커다란 갈매기의 경우 굵고 끝이 날카롭게 굽어 있어서 다른 동물의 새끼나 살아 있는 먹이를 잡을 때 효과적이다.

작은 갈매기들의 부리는 가늘고 적색 또는 흑색인 것이 많다. 다리는 가늘고 길며, 황색·오렌지색·적색·흑색 등이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물에서 오랫동안 떠 있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헤엄을 치거나 물에서 날아오를 때 용이하다. 갈매기도 다른 새들처럼 여름과 겨울에 깃의 색이 바뀌는데 큰 갈매기들은 일반적으로 겨울에 연한 반점이 생길 정도이지만 여름에는 머리의 깃이 검어지는 종류도 있으며, 붉은부리갈매기처럼 봄의 생식 시기에 가슴의 깃털이 핑크색으로 변하는 것, 전신이 회색인 갈매기 등 색다른 종류도 있다.

갈매기는 대부분 2~4년이 지나야 번식능력을 가질 수 있는 어른새가 되는데 작은 종류의 갈매기들이 큰 종류의 갈매기에 비해서 번식 시기가 빠른 편이다.

갈매기는 몇 종을 제외하고는 북극권 연안에서 번식하는 재갈매기가 대표적이고, 유럽에서는 등이 암색인 붉은눈갈매기가 있다. 등이 회색이지만 짙은 색인 큰재갈매기는 한국에 철새로 도래하고 오후츠크해 연안에서 번식한다.



위 04\_05 공중에서 비행을 하다 먹이를 보고 아래로 내려 가는 장면 06\_07 여유롭게 비행을 즐기고 있는 갈매기

- 04
- 05
- 06
- 07

- 08
- 09

뒤쪽 위 08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자 모여드는 갈매기들 09 날이 따뜻해 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갈매기 무리들



동양 특산인 꿩이갈매기는 등이 암색이고 꼬리에 검은 빛이 있는데 우리나라 연안의 섬에서 번식하며, 어린 것은 전체가 갈색이어서 어른 새와의 구별이 쉽다. 비교적 작은 종류에 속하는 붉은부리갈매기는 철새로 겨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가까운 바다나 호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4월경에는 머리의 깃털이 흑갈색으로 아름답게 변하며 북쪽으로 돌아간다.

갈매기류는 대체로 밀집된 무리를 이루어 번식하는 것이 많고, 무리 내에서는 등지를 중심으로 상호간의 관찰구역의 범위를 지키고 때로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심한 싸움도 하지만 다른 종류의 덩치 큰 새가 덩치 근처나 먹을 것이 많은 곳에 들어오면 모두 모여서 함께 쫓아내기도 한다. 등지는 풀줄기로 간단하게 만들며 크림색 또는 녹색을 띤 담갈색에 흑갈색의 반점이 있는 알을 3~4개 낳는다. 암수가 모두 알을 품으며, 알을 품은 후 약 24~28일이면 새끼가 부화한다. 새끼는 꼬마물떼새처럼 주변의 자갈이나 바위와 비슷한 보호색을 띠고 있으며 부화되자마자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주로 덩치 안에서 어미가 주는 먹이로 자란다.

꿩이갈매기의 새끼가 덩치를 떠나려면 약 50일이 걸린다. 갈매기류는 생선을 주식으로 하고 고기떼 위에 모여들기 때문에 어선의 안내가 되기도 한다. 또 선박을 뒤따르며 떨어지는 음식찌꺼기를 먹으므로 항해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한다. 항구나 해안의 폐기물, 호숫가에 버려진 해산물, 갯벌의 갯지렁이, 경작지에 모이는 벌레나 메뚜기 등도 먹는다.

### 퇴치 활동

갈매기들은 기본적으로 후각과 시각이 매우 훌륭하여 먼 곳의 먹이를 잘 찾기 때문에 기지나 공항 근처에 갈매기들의 먹이 공급원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바닷가 근처의 기지에서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지역에 어로 활동을 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곳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여

야 하며 어로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포획한 물고기를 분류하는 곳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들에게 먹이 공급처는 그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어 어떤 위험이 있어도 접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과학적이고 개선된 조류퇴치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새들이 접근하기 좋은 매력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1847년 북아메리카의 솔트레이크시티에 백인이 이민한 다음 해, 밀밭에 메뚜기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왔으나 그 주변의 호수에 사는 캘리포니아갈매기 무리들이 이 메뚜기 떼를 며칠 사이에 모조리 잡아먹었다는 기록을 보면서 갈매기의 식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고 기지 역시 곤충이 다수 출몰하면 많은 새들을 끌어들이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갈매기들이 기지나 공항에 들어 왔을 때는 반드시 퇴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기지나 공항에 들어오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여 갈매기들로 하여금 매력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도 간월호에는 여름옷으로 바뀌 입은 붉은부리갈매기들이 유유히 날개짓을 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조나단이라도 된 듯이 말이다. 며칠 있으면 모두 북쪽으로 날아갈 이곳의 갈매기들에게 그동안 맺어온 무언의 협약이 잘 지켜지길 부탁해본다. 언제까지라도 간월호 하류에서만 생활하고 기지 근처에는 다가오지 말 것을...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도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윤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한창이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깨끗해지고 잘 말라 기분 좋은 내일을 걸쳐요  
임창정 주연 뮤지컬 <빨래>

뮤지컬 빨래는 우리 이웃들의 고단한 서울살이를 무대에 올렸다. 대학진학의 꿈을 안고 상경했지만 자취생활 6년 동안 꿈을 잃어버린 20대 직장여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불의를 참아내는 몽골출신 불법이주 노동자, 장애인 딸을 방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주인 할머니 등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주인공 몽골청년 설롱고를 임창정이 맡아 눈길을 끈다. 임창정은 한국에 산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몽골청년의 어색한 발음을 우스꽝스럽지 않고 진솔하게 소화했고, 노래를 할 때는 임창정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 잡았다.

임창정이 뮤지컬 <빨래>에 출연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뮤지컬에 더욱 정이 간다. 16년 전 임창정이 이 뮤지컬의 제작감독인 김희원의 집에 살면서 나중에 성공하면 함께 뮤지컬을 만들어 보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임창정을 16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노개런티로 공연을 하게 했다.

캣츠, 시카고, 맘미아, 오페라의 유령 등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대규모 뮤지컬 틈에서 우리 정서를 잘 담아낸 우리 뮤지컬 <빨래>.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깨끗해지고 잘 말라서 기분 좋은 나를 걸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몽골청년의 희망찬가에 동참해보자.



장소 :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기간 : 6월 14일까지  
가격 : R 5만 5천원 / S 3만 5천원  
홈페이지 : club.cyworld.com/soobak

17세기 파리, 남자의 전설이 부활한다  
현란한 총검술의 진수 뮤지컬 <삼총사>

프랑스의 소설가 뒤마의 역사 소설 삼총사가 무대에서 다시 씩여진다. 2004년 체코 프라하에서 초연된 뮤지컬 <삼총사>는 뮤지컬 <햄릿>, <클레오파트라>에 이은 체코 뮤지컬로 웅장하고 화려한 브로드웨이 뮤지컬과는 달리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아하게 노래한다.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현란한 총검술 장면은 총사의 절도와 유연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17세기 프랑스, 총사가 되기 위해 파리로 온 시골 가스쿠뉴의 달타냥과 우연히 마주친 삼총사, 또 우연히 마주친 달타냥의 연인 콘스탄스, 왕의 명령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다 사랑을 놓아버릴 수 밖에 없었던 아토스, 한 사람 밖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왕의 자리 때문에 평생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야 했던 쌍둥이 왕 등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주인공 같은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신성우, 유준상, 박건형, 엄기준, 김법래, 민영기, 배해선, 김소현 등 국내에 내로라하는 뮤지컬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17세기 남자 중의 남자만이 될 수 있다는 총사를 무대에서는 뮤지컬 스타 중의 스타가 맡은 셈이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우정, 세월이 가도 변하지 말아야 할 사랑. 어쩌면 뮤지컬 <삼총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노래했기에 전세계 100만 관객들에게 사랑 받았을지도 모른다. 총사들이 더 중요한 것은 총검술보다 우정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장소 :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  
기간 : 6월 21일까지  
가격 : R 9만원 / S 7만원 / A 5만원(평일은 1만원씩 저렴)  
홈페이지 :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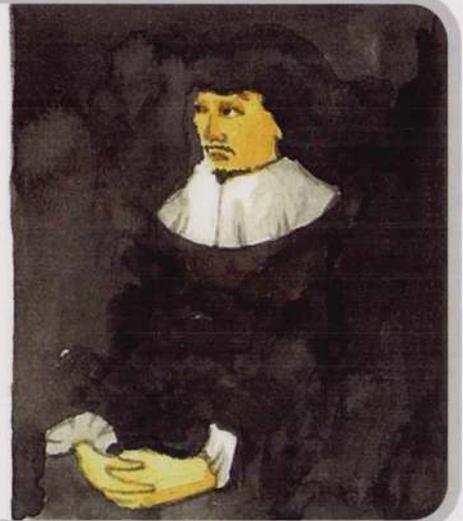


## 렘브란트의 '야경'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중

1630년대 네덜란드의 초상화 속 인물들은 한결같이 검정색 옷에 하얀 레이스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는 마치 사진을 찍은 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는 화풍(畵風)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젊은 화가였던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 역시 정해진 틀에 맞추어 그림을 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상화를 잘 그리는 유명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명성을 들은 네덜란드 육군 소속인 코크 대위(大尉)가 부하장병들을 이끌고 렘브란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우리 부대원들은 실제와 똑같이 그려주게. 참고로 우리는 군인이라는 것, 군대에는 서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그려주길 바라네." 코크 대위의 이 말은 군인다운 복장에 진지한 표정으로 장병들이 서열에 맞추어 잘 정렬해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들이 그린 근대 그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굴만 빼면 모두가 똑같은 복장에 구도(構圖) 역시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순간 그는 화가로서의 양심상 더 이상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전하는 사격수, 무기와 화약통을 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심지어는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개 한 마리를 그려 넣는 등 자유롭게 화폭(畫幅)을 메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주문한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도였는지 확인차 렘브란트를 찾아간 코크 대위는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자 벌척 화를 내면서 다른 화가에게 다시 그림을 맡겨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화단(畫壇)에 알려지자 렘브란트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문은 끊기고 동료 화가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으며, 게다가 아내의 죽음까지 겹치는 불운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야경(夜警)'이라 이름 붙여진 이 그림은 그의 대표작이 되었고 우대받던 화가 렘브란트의 인생은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추구했던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난 후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의 화풍은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당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행을 겪었지만 렘브란트와 같이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정신만이 미래의 발전과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 총성을 다하여 나라를 지킨 차인(茶人), 서산대사(西山大師)

**서**산대사(1520~1604년)는 9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이듬해에는 아버지마저 잃고 고아가 되었다. 안주 목사 이사증(李思曾)의 도움으로 훌륭히 성장하여 15세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였고, 29세에 승과시험에 합격하여 36세에 지금의 서울 봉은사 주지가 되었다. 그러나 입신양명보다는 득도의 뜻을 두고 묘향산에서 참선수행을 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73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국에 격문(檄文)을 돌려서 각처의 승려들이 구국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조선의 승려들이여! 애! 하늘의 길이 막히도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롭도다. 극악무도한 적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 그 독기가 조선 천지에 가득한 지라. 삼경이 함락되고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 이룬 바가 산산이 무너지도다. 저 바다의 악귀들이 우리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나니 이 어찌 사람이 할 짓이라? 살기가 서린 저 악귀들은 독사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종략-

조선팔도의 승병들이여! 일어서시오! 순간 범흥사로 집결하시오! 나 휴정은 거기서 그대들을 기다릴 터이오, 우리 일치단결하여 결전의 싸움터로 진군합시다.

서산대사는 제자인 사명대사와 처영과 함께 순안 범흥사에서 5천여 명의 승병을 모집하여 7월 17일 평양성 전투 참가, 모란봉에서 왜군을 맞아 승리를 거두고 1593년 1월 9일 평양성을 수복하였고, 10월에 700여 명의 정예의 승병을 결성하여 선조 임금에 호위하여 한양으로 환도(還都) 하였다.

이때 서산대사는 선조 임금에게 늙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사오니 승병 군사사무를 사명대사와 처영(處英)에게 넘겨주고 묘향산으로 돌아가게 허락을 청하였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국일도대선사선교도총섭부종수교보제등계존자(國一都大禪師禪敎都總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라는 최고의 칭호를 내렸다.

대사가 세상을 떠난 후 185년이 지난 1788년에 그의 7세손 천점(天點) 등이 대둔사 남쪽에 사당을 짓고 대사의 화상을 모시기 위하여 임금에게 진정을 올렸고, 호조판사 서유린이 왕에게 적극적으로 진언하여 나라에서 사당의 칭호를 내

려주기를 청하였다. 정조는 대사가 임진란에 세운 공적을 생각하여 특별히 표충(表忠)이라는 명칭을 내리고 대사의 직계를 더 높이 추중하고 이듬해 4월에는 예조의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이어 앞서 경상도 밀양에 유정(惟政)을 모신 사당으로 표충사(表忠祠)가 있었는데 이제 대사의 사당도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나라에 충성을 바친 것을 나타내는 영예로운 특전이였다. 이 건물은 조선 정조 12년(1788)에 대사의 높은 공을 기리기 위해 왕이 친히 사액을 내리고, 직접 정조 대왕이 표충사라는 현관 글씨까지

썼으며, 나라에서 세금을 면해주는 특혜를 받았다. 이후 관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근의 선암사나 송광사와 견줄만한 지위로 향상되었다. 한편, 서산대사의 유종인 금란가사, 발우(밥그릇)와 정조 임금의 하사한 금병풍 등이 유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다음은 38세부터 금강산, 두류산, 묘향산 등에서 35년간 참선(參禪)과 차(茶) 생활이 일상이었던 선승(禪僧)의 자연과 벗한 차시(茶詩)를 서산대사의 시집(詩集) 청허집(淸虛集)에서 일부를 소개한다. ㉞

白雲爲故舊 (백운위고구)  
明月是生涯 (명월시생애)  
萬壑千峰裏 (만학천봉리)  
逢人卽勸茶 (봉인즉권차)

松榻鳴山雨 (송타명산우)  
傍人詠落梅 (방인영낙매)  
一場春夢罷 (일장춘몽파)  
侍煮點茶來 (시자점차래)

晝來一碗茶 (주래일완다)  
夜來一場睡 (야래일장수)  
靑山與白雲 (청산여백운)  
共說無生事 (공설무생사)

汲澗燃秋葉 (급간연추엽)  
烹茶一納飲 (팽차일납음)  
夜來嚴下睡 (야래엄하수)  
魂也御飛龍 (혼야어비룡)  
明朝俯天下 (명조부천하)  
萬國列如蜂 (만국열여봉)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 (불수호랑행)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흰 구름을 옛 벗 삼으며  
밝은 달은 나의 생애로다  
무수한 골짜기와 무수한 봉우리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차 한 잔 권하리.

솔榻에 내리는 산비 소리 들리고  
옆 사람은 지는 매화를 노래하고  
한바탕 봄꿈이 끝날 무렵  
시자가 차를 달여 오네.

낮에는 차 한 잔  
밤이면 잠 한 숨  
푸른 산 흰 구름은  
함께 무사(無事)를 이야기 하네

산골 물 길어 낙엽으로 태워  
차 끓여 한 잔 마시고  
밤에는 바위 밑에 자니  
영혼은 승천하는 용을 탄듯하고  
내일 아침 천하를 굽어 살피면  
온 고을이 벌집처럼 펼쳐 있으리라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라  
오늘 걷는 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리라.

# 서산대사의 차시 (茶詩)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전투비행단**  
전재인 준위는 차례(茶禮)문화 연구와 전통 다도(茶道)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한문으로 된 다신전을 사진으로 표현한 <사진으로 읽는 다신전>을 출간했으며, 생활 속의 일제식민 잔재 청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영양자세

## III

하체에 힘을 길러주며 근형감을 잡아준다

이 책에서 | 복이여가기를 위한 영혼

Virabhadras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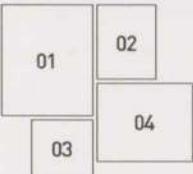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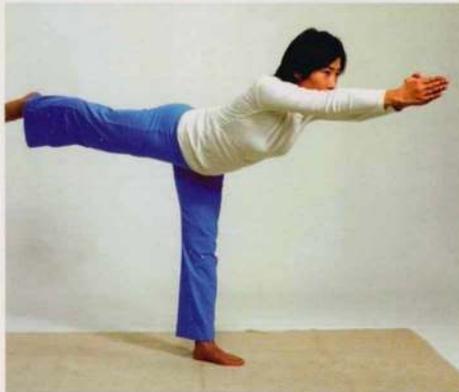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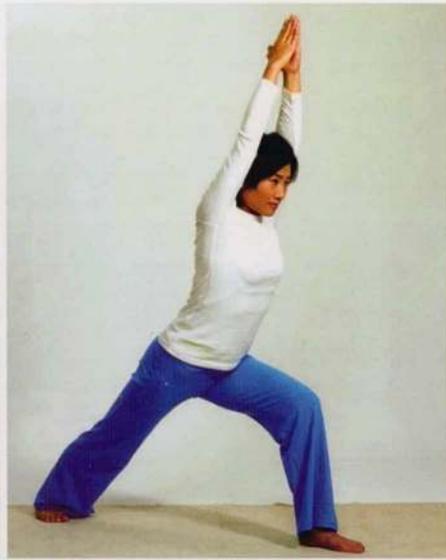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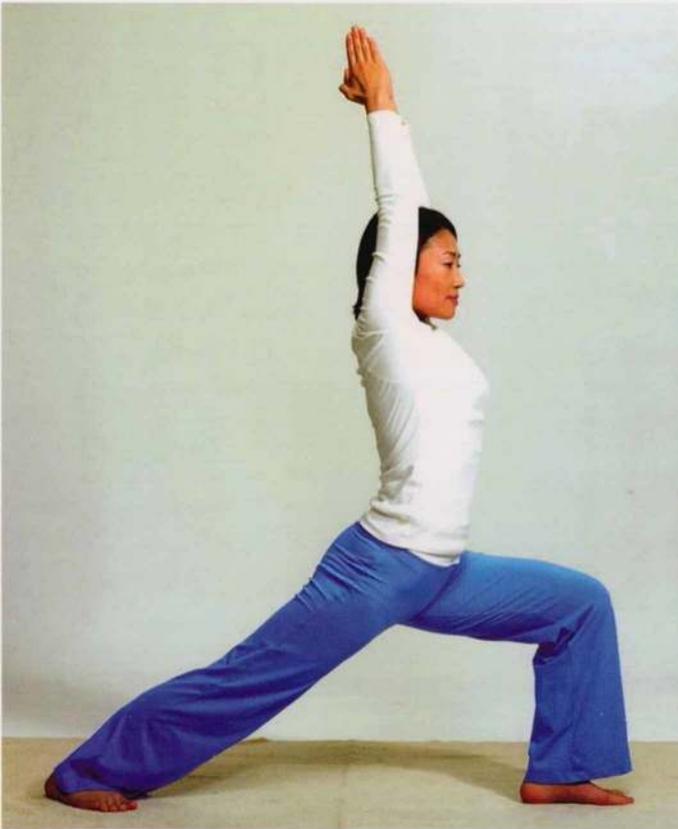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며 각급 학교들의 운동회, 소풍과 같은 야외 행사가 많지요. 그 뿐 아니라 떨어져 지내느라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이나 은사님을 찾아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며 서로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하며 또 따뜻한 햇살과 온갖 자태를 뽐내는 꽃구경을 하러 가족끼리 연인끼리 교외로 나들이를 많이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약간은 들뜨고 화려했던 5월이 지나면 산과 들의 푸르름이 더해가서 드디어 신록의 계절이라 부르는 6월이 옵니다. 화려한 색깔과 향긋한 내음을 뽐으며 벌과 나비는 물론 사람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했던 온갖 꽃들이 지고 6월이 되면 나무들은 연두빛에서 초록으로 점점 변해가는 푸르름으로 남습니다. 그래야 꽃이 떨어진 자리에 맺힌 열매에게 좋은 영양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변화는 마치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나무의 오랜 연륜에서부터 나오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예로부터 6월은 농사일로 가장 바쁜 때로서 양력으로 6월 6일 즈음에 망종(芒種)이라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망' 자는 까끄라기, 털, 바늘 등의 뜻을 가진 말로, 말 그대로 까끄라기 씨를 가진 곡식인 보리를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물을 대고 벼를 심는 것이지요. 옛말에 보리씨를 뿌릴 때는 100일이고 거둬들일 때는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보리수확기는 빠르다는 뜻입니다. 빨리 보리를 거둬들여야만 벼를 심을 시기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때에 6월에는 온 마을사람들이 들판으로 나와 내집 내집 가리지 않고 다 함께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며 함께 일하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농사일을 거들기 어려운 어린이들조차 모내기 줄을 잡아주고 부녀자들은 새참을 준비해서 머리에 이고 나오며 나이 드신 분들은 농요를 부르거나 꿩소리, 장구, 북, 징 등 사물놀이를 하며 서로가 일하는 리듬을 맞추고 피로를 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품앗이는 농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습관과 기억들이 우리의 DNA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6월이 되면 몰려나가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싶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여년 전 민주화를 위해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 사람의 물결로 뒤덮였고 가장 최근에는 2002년 월드컵의 응원열기로 온 나라를 붉은 색으로 뒤덮기도 한 기억이 생생하지요.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일이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과 놀이와 일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陰)과 양(陽)이 따로 떨어진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치를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또한 요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에는 요가자세와 놀이가 하나인 듯한 영웅자세 III를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하며 비행기놀이를 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자세입니다. ●



\*본 사진은 <음양요가>(이승용 저, 2007, 도서출판 홍익요가연구원)에서 저자의 허락하에 사용한 것으로 무단전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영웅자세 III〉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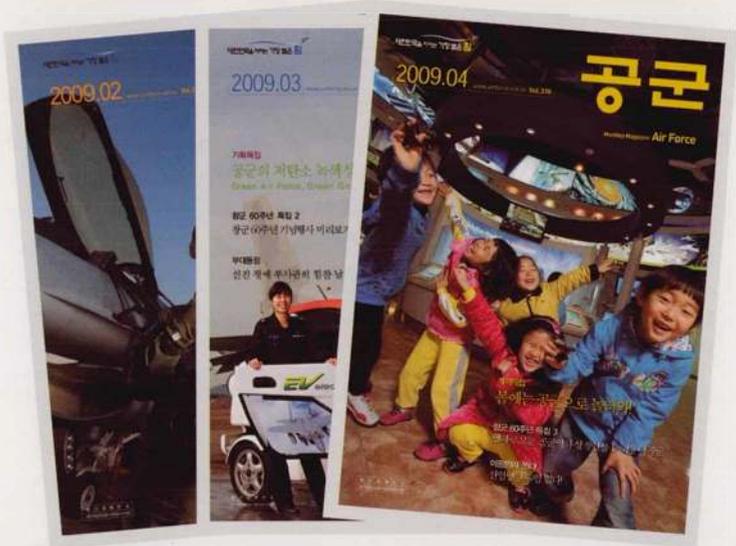
1. 두 발을 어깨너비의 약 2배로 벌려서 두 손을 머리 위에서 마주 붙인다.
2. 오른발을 안쪽으로 15도, 왼발을 바깥쪽으로 90도 돌린다.
3. 상체를 왼쪽으로 90도 돌린 다음 왼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영웅자세 I (2008년 12월호)을 만든다.
4. 상체를 앞으로 숙여 마주 붙인 손을 시선 앞으로 쭉 뻗으며 오른발을 들어올린다. 머리에서부터 몸통과 오른쪽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며 고르게 숨쉬며 할 수 있는 만큼 버틴다.
5. 천천히 들고있는 오른발을 원래의 자리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세운다. 역순으로 자세를 푼다.
6. 반대방향으로도 한다.

▶ 효과

1. 하체의 힘을 길러주며 다리 전체의 균형을 없애는 반면 근육을 길러준다.
2. 고관절과 골반의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
3. 등 전체의 탄력성과 힘을 길러주며 척추의 배열을 똑바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자세에 대한 균형감과 운동신경이 발달한다.
5. 주의집중력을 길러준다.

▶ 참고

1. 몸을 지탱하는 다리의 무릎을 편다.
2. 힘들면 두 손을 붙이지 않고 앞으로 나란히 뻗는다.
3. 무릎이 아프면 당분간 하지 않는다.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이번 호에서는 <Hot Clip>과 <At a Glance>에 '히블로 비상하는 공사 57기'와 'The End, Another Start! 공사 졸업식' 관련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독자를 배려하는 관점에서 잘 써주신 월간「공군」을 책꽂이에 꽂아두며 시간 날 때마다 본답니다. 다양한 내용이 매달 쏟아져 나오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달이 갈수록 꼭 채워지는 것에 배부르답니다. 독자와 긴밀해지기 위해 애쓰시는 흔적이 엄청 옛보여서 더욱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 양우순례, 전남 여주시 -

#3

차디찬 겨울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봄이 그리워집니다. 봄내음 물씬 풍기는 봄나물들이 입맛을 다시게 하고, 산언저리마다 열린 초록색이 피어날 때면 가슴마저도 상쾌해집니다. 화사한 꽃의 향연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워질 즈음이면 그 생각만으로도 봄이 몹시나 매력적인 계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책마을>에 담긴 제주 여행을 읽으면서 봄날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임을 가슴속에 담아 봅니다.

- 문중현, 경남 진주시 -

#5

<이등병이 쓴다>라는 코너는 매월 보아도 유익하고 참신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된 군생활 중 아무것도 모르는 이병을 위해 챙겨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서상병의 모습, 그에 보답하는 편지와 피자 한판이 감명 깊습니다. 먼 옛날 저의 군생활이 다시 생각나게끔 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한번은 참가해봄직한 모형항공기 대회를 5월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형항공기 대회 이모저모를 취재해 주세요!!!

- 이윤성, 인천시 남구 -

#2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 상징인물1> 코너에서 다룬 최용덕 장군의 이야기는 그림도 너무 멋있고 너무 이해하기 쉬운 글까지 정말 새롭고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 점심 값도 만만치 않는 지출이 되는 요즘, 남편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도시락!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린 이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높여 주는 월간「공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은옥, 충남 천안시 -

#4

창군 60주년 특집만화, 덕장 최용덕 장군 만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자칫 딱딱하거나 지루할 수도 있는 역사를 만화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모형항공기 대회 예선 및 준비과정도 궁금합니다. 공군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만큼 준비과정도 힘들고 예선도 치열할 것 같군요. 공군 창군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더 멋진 공군을 기대합니다.

- 이현아, 경기도 고양시 -

#6

자녀 둘을 가지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봄에는 공군으로 놀러와'가 아이들을 위한 정보제공이 잘 정리되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투기와 비행기를 좋아하는데 쉽고 재미난 삽화와 이야기로 구성된 공군의 전투기 이야기를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접할 수 있는 종이 비행기 모형도 넣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이민경, 부산시 남구 -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_\_\_\_\_

주소: \_\_\_\_\_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한게 활용됩니다.

###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_\_\_\_\_

주소: \_\_\_\_\_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참모총장  
참조: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6935, 02) 506-693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6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6월호 퀴즈정답

1.

2.

3.



# Quiz

월간 「공군」 6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6월 30일까지

1. 6·25 전쟁당시 UN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 공군에 지원군을 보냈던 6개의 나라는 어디인가?
2. 공군창군 7인의 주역 중 한 명으로 F-51 인수편대장을 맡아 일본 이다즈께 기지에서 무스탕을 성공적으로 인수해 온 업적을 지닌 사람은 누구인가?
3. 6·25전쟁에서 최고의 휴먼 드라마라고 일컬어지는 '홍남철수작전'에 사용되었던 상선의 이름은 무엇인가?

## ※ 4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최용덕
2. 바다의 추적자
3. 밀란 쿤데라

퀴즈 당첨자

- 전남 여수시 양우순례  
충남 천안시 박은옥  
경남 진주시 문종현  
경기도 고양시 이현아  
인천 남구 이윤성  
부산 남구 이민경

##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mailto: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mailto: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935/042-552-6935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http://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Beyond the Air*

하늘을 지켜온 60년!

우주로 비상할 60년!

대한민국공군 창군 60주년  
since 1949

